

2020

정책연구 2020-06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연구진 김보국 · 김형오 · 조하진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0-06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김보국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김형오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조하진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자문위원 최영기 · 전주대학교 교수

최수경 · 금강생태연구소 소장

박종석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장

연구관리 코드 : 19JU2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i -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의 3대 원칙	9
〈표 2-2〉 마을공동체 형성단계	9
〈표 2-3〉 단계별 단위사업 분류	10
〈표 3-1〉 1시군 1생태관광지 선정현황	13
〈표 3-2〉 평가지표	17
〈표 3-3〉 단계별 적용 평가지표	17
〈표 3-4〉 평가지표	18
〈표 3-5〉 평가항목 및 내용	18
〈표 3-6〉 년도별 주요성과	67
〈표 3-7〉 년도별 주요 개선방안	68
〈표 4-1〉 생태관광인프라 유형	73
〈표 4-2〉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 발전방향	74
〈표 4-3〉 생태관광지별 협의체 구성 및 에코매니저 육성 현황(2018년 기준)	76
〈표 4-4〉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의체와 마을사업단 비교	80
〈표 4-5〉 에코매니저 추진체계	82
〈표 4-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상 센터의 기능	84
〈표 4-7〉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주요 사업내용	85
〈표 4-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가능 주요시설	88
〈표 4-9〉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추진사업내용	89
〈표 4-10〉 초기 평가지표	89
〈표 4-11〉 수정 평가지표	90
〈표 4-12〉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BI방향	92
〈표 4-13〉 생태관광지의 Identity 전략	93
〈표 4-14〉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랜드마크 유형 및 추진방향	93
〈표 4-15〉 생태관광 육성 사업계획 평가표	97
〈표 4-1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기준(안)	100
〈표 4-17〉 전북 생태관광지 국가예산 연계 사업	103
〈표 5-1〉 중기형 정책 환경에 따른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역할변화	109
〈표 5-2〉 생태관광지의 Identity 전략	110

〈그림 2-1〉 마을공동체 형성 단계에 따른 마을사업 분류	10
〈그림 4-1〉 전라북도 생태관광컨셉	73
〈그림 4-2〉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 추진체계	77
〈그림 4-3〉 생태관광 협의체 관계도	79
〈그림 4-4〉 생태관광협의체 구성(안)	80
〈그림 4-5〉 생태관광 마을사업단 구성(안)	81
〈그림 4-6〉 제4섹터 개념 모형도	83
〈그림 4-7〉 증기 정책환경 변화에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역할변화	86
〈그림 4-8〉 부처별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2019.4)	87
〈그림 4-9〉 전라북도내 생태관광 이미지	91
〈그림 4-10〉 생태체험센터 기능	94
〈그림 4-11〉 사업추진 단계	199
〈그림 5-1〉 전라북도 생태관광컨셉	107
〈그림 5-2〉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 추진체계	108

1

장

연구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2015년 전라북도는 10개년 계획으로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사업평가를 통하여 예산의 차등지원, 부진한 시군 사업 종결(14개→12개),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의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음.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프라, 교육프로그램, 생태밥상 등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들이 구축되고 있음
- 환경부 생태관광지 지정, 국가지질공원인증 등으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생태관광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변화로 탄력을 받고 있으나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새로운 경쟁 지자체 들이 등장하고 있어 차별화된 생태관광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 지정 2개소(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정읍 솔티숲과 월령습지), 국가지질공원 인증 2곳(전북서해안권, 진안·무주)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음
- 또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라는 예산 투입범위의 한계로 사업비가 하드웨어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소프트웨어로의 예산 투입을 위해 예산집행융통성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생태관광육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점검을 통하여 전북형 생태관광사업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목적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을 중간점검하고 중간점검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제시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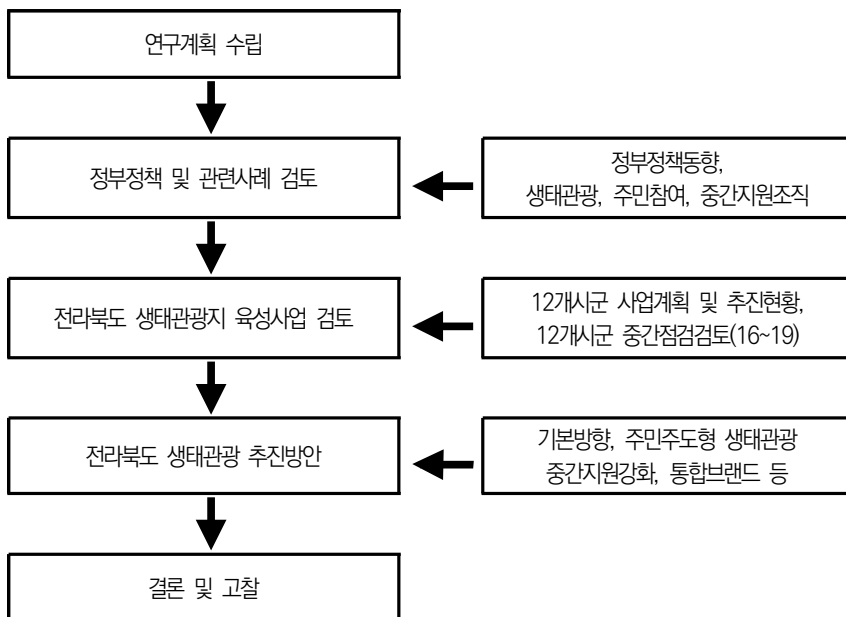
가. 연구 범위

- 전라북도 및 전북생태관광육성사업

나. 주요 연구내용

- 정부정책 및 관련사례검토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 검토
- 전라북도 생태관광사업 추진방안

3. 연구추진체계



2

장

정부정책 및 사례검토

Jeonbuk Institute

-
1. 정부정책동향
 2. 관련사례

제 2 장 정부정책 및 사례검토

1. 정부정책동향

가. 환경부 생태관광 중장기발전계획¹⁾

1) 생태관광 비전

비전	자연의 풍요로움 과 생태공감 확산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	--

지역주도의 자립형 생태관광 저변 확대

2)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이행과제

가) 전략1 : 자연생태적 지속가능성 향상

- 생태관광지역 자원관리 체계화 : 자원관리구역 설정 및 운영, 생태자원 관리 체계화, 시설자원 운영·관리 체계 개선, 생태관광지역의 탐방예약제 도입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저변확대 : 신규 생태관광지역 발굴·지정, 보호지역과 생태관광의 연계 확대, 생태관광 브랜드 강화
- 생태 기반 경제 활동 : 탐방서비스의 유료화, 순환경제로의 전환, 수요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 유통

나) 전략2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도모

- 생태관광지역 주민 역량 강화 :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개선, 생태관광 디렉터 교육과정 체계화, 생태관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초·중·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관·학 협력 생태관광 교육과정 개설, (종사자) 교육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생태관광 인력의 일자리 기반 마련

1) 환경부,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19.6

- 생태관광지역 소득 향상 및 이익 환원 : 수익성 제고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역 수익에 대한 이익환원체계 구축, 주민협의체 수익 창출 조직 모델화
- 생태관광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 생태관광 인식 증진을 위한 타겟별 홍보, 기존 운영 중인 홍보채널 선진화, 신규 홍보 채널 확대 및 지역 홍보 맞춤화

다) 전략3 :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뒷받침

- 스마트 생태관광 정책추진 기반 확보 : 생태관광 통계 DB구축 추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객관적 평가의사결정 기반 확보, 관계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생태관광 지원조직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 :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설계와 역할분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영역의 확대
- 법·제도적 기반확보 : 법제적 기반 마련, 제도적 기반 정비, 성과평가 체계 개선
- 국제협력 방안 : 국제협력 추진, 생태관광지역의 국제화 추진방안

나.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 관련 국가예산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사업 중 생태관광과 연계 가능한 사업은 생태녹색관광,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열린관광지 조성 등이 있음. 전라북도 12개 생태관광지의 성장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구분	추진목적	공모내용
생태 녹색 관광	-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 문화콘텐츠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	- 선정분야 및 규모 : 2개 분야, 총 15개 내외 ·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 10개 내외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 5개 내외 -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2,075백만원 ·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 1,375백만원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 700백만원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 지역관광개발 특화소재 발굴 및 연계 - 지역관광 자립 발전 토대 마련 지향 -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활성화 중심 개발	- 5년 간 국비 총 100억 원 이내 지원 - '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2개소 선정, 운영 · '19년 2개소, '20년 8개소, '21년 5개소, '22년 5개소, '23년 2개소
열린 관광지 조성	-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	- 202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소 조성 계획 ('19년 기준 전국 총 41개소 선정) - 지원금액: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2.5억 원 지원

2. 관련사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²⁾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원칙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맞춤형지원, 인큐베이팅 지원이라는 3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음

〈표 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의 3대 원칙

원칙	유형	내용
자립 지원	당사자주의	주민 스스로 자원 조달
	보충성의 원리	주민 당사자의 자기 조달 이후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
맞춤형 지원	마중물 지원	마을에 기초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의 지원
	불쏘시개 지원	주민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마을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다지기 지원	마을 관계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마을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지원
인큐 베이팅 지원	사전 지원	사업 신청 전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
	실행 및 사후 지원	마을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의 합동 컨설팅 시스템
	평가 모니터링	자기주도적 평가,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2) 마을공동체 형성단계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씨앗→새싹→희망→자립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형성 단계에 맞추어 사업을 설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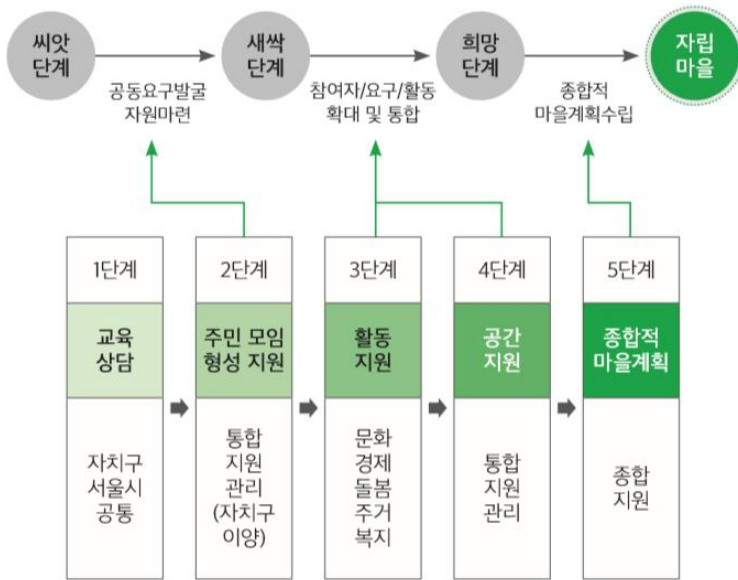
〈표 2-2〉 마을공동체 형성단계

마을단계	분류 기준
씨앗단계	다양한 주민모임이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공동의 요구를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새싹단계	씨앗단계가 발전하여 공동의 요구를 마을활동으로 시작한 단계
희망단계	새싹단계가 발전하여 2개 이상의 공동 요구를 가지고 마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계
자립단계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마을에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해결되는 단계

출처 : 안현찬 외 2(2016 : 43)를 재작성

2)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8-2022), 2017.11

- 마을공동체 형성단계에 맞추어 교육상담, 주민모임형성지원, 활동지원, 공간지원, 종합적마을계획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형태에 따라 단위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음



〈그림 2-1〉 마을공동체 형성 단계에 따른 마을사업 분류

- 단계별 지원되는 단위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3〉 단계별 단위사업 분류

단계	단위사업
모임형성지원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씨앗), 마을과 학교(모임지원), 마을미디어(체험형, 교육형, 아이템형), 이웃만들기+우리마을프로젝트, 자치구 자체사업
활동지원	우리마을지원(활동), 다문화마을공동체, 아파트마을공동체, 안전마을(지역 맞춤형), 마을미디어(복합형, 매체형), 공동육아(새싹/줄기단계), 상가마을 공동체, 마을기업(행자부)
공간지원	우리마을지원(공간)+마을북카페, 마을미디어(거점형), 마을예술창작소(3개 세부사업), 마을기업(서울시)
모임간 연계지원	마을연계망+우리마을프로젝트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지원	동네단위 마을계획(수립, 실행), 마을과 학교(상생), 에너지자립마을, 안전 마을(통합형)

3

장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검토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계획 및 평가지표
 2. 시군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
 3. 시사점

제 3 장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검토

1.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계획 및 평가지표(16~19)

가.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2015.6)³⁾

- 전라북도는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과 패스라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
 - 생태관광지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프로그램 구성방향, 경영방식, 수익모델, 탐방객 마케팅, 공동 랜드마크개발, 14개 시군 패스라인 구축방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3-1〉 1시군 1생태관광지 선정현황

유형	시군별	생태관광지	대표관광지
지질공원형	진안군	진안 지오파크(Geo-park)	마이산 도립공원
생물 군락지형	전주시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덕진공원
	장수군	금강발원지 뜰농생 예코파크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고창읍성
경관 자원형	군산시	청암산 에코라운드	군산근대문화도시
	김제시	벽골제 농경생태원	벽골제 관광지
	완주군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삼례 문화예술촌
	순창군	섬진강 장군목	강천산 군립공원
	부안군	신운천 수생생태정원	변산 해수욕장
생태관광 기본시설형	익산시	서동 생태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
	정읍시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내장산 국립공원
	남원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광한루원
	무주군	구천동 33경	반디랜드
	임실군	성수 왕의 숲	임실차즈테마파크

1) 기본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가) 생태관광지 시설의 기본원칙

- 시설이 자연의 가치를 보여주고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 시설이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도록 배치되고 디자인되며 관리되어야 함

3)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2015.6, 재정리

- 시설이 관광객에게 독특하고 차별화된 생태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함
- 시설이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보장

나) 생태관광지 시설의 구성요소

- 환경보전시설 : 생태자원 보전과 관련된 시설
- 탐방시설(체험·교육시설 포함) : 탐방센터, 탐방로, 탐방안내시설, 탐조시설, 탐방편의시설, 안전시설
- 지역사회 관련시설 : 마을센터, 숙박시설, 공사시행

다) 생태관광지 시설 및 관리기준

- 친환경 개발기준 : 입지선정, 토지이용, 건축설계
- 친환경 시설 관리기준 : 실행적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물관리, 쓰레기관리, 소음대기질관리, 녹색실천, 친환경교통수단, 보전기여
- 탐방객 관리기준 : 친환경적 행동, 친사회문화적행동
- 지역사회 협력기준 : 복지후원사업, 지역역량강화지원, 지역협력, 편익제공

2) 프로그램 구성방향

가) 프로그램 구성 기본방향

- 탐방객의 탐방활동 관련 규제를 위하여 시군별 생태관광지를 환경보전지역, 복원필요지역, 환경이용지역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함
- 용도지역은 시군이 판단하여 계획하고 변동형 내지 교대형으로 관리·지정하도록 함

나) 탐방프로그램 실행가이드라인

- 지속가능성 확보원칙
- 양질의 관광경험 제공 원칙

- 책임있는 관광행동 유도 원칙
- 지역참여와 편익 창출 원칙

3) 생태관광지 경영방식

-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도하도록 하고 능동적 운영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 과도기적 과정인 주민, 지자체, 생태관광전문가, 지역공동체 활동가 등이 거버넌스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 주민주체 경영방식의 유형 : 마을협의회,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광두레 등의 경영방식 유형이 제시됨

4) 생태관광지 수익모델

- 생태관광지 수익모델의 구성요소 : 숙박형 수익, 먹거리형(식음제공형) 수익, 생태체험프로그램형 수익

5) 생태관광지 탐방객 마케팅

- 목표설정 : 단기적(국내 탐방객 유치), 장기적(해외 탐방객 유치)
- 상품개발 전략 : “자연에서 놀며 배우는 생태관광” 상품개발 비전을 설정하고 체험거리, 숙박시설, 즐길거리, 먹거리 등에 대한 개별전략을 제시함
- STP(Segmentation+Targeting+Positioning)
 - 시장세분화(Segmentation) : 사업초기 전북 지역 관광객 외부유출 방지로 지역내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지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목표시장(Targeting) : 체험을 통해 교육적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 포지셔닝(Positioning) : 자연생태 보고, 놀면서 배우는 생태교육장, 숙박관광으로 가족애 증진, 생태관광체험센터(랜드마크화)에서 다채로운 체험가능, 친환경적 공간 이미지
- 생태관광 홍보전략 : 전북 생태관광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 여행사와 협업으로 생태관광 체험루트 개발 및 상품홍보, 대학생 및 일반인 등 대상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전북 생태관광 네트워크 형성 : 전북생태관광협의회를 조성하고 전북도청이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전북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협력 관계 유지로 생태관광 활성화

6) 14개시군 생태관광지 공동의 랜드마크 개발

- 랜드마크 시설로서 “생태관광체험센터(방문자센터)”
- 생태관광체험센터의 공통 도입시설 : 전시/관람, 행정/연구, 포육시설, 체험활동, 편의/휴게
- 생태관광체험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체험교실운영, 에코투어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등
- 생태관광체험센터의 상징물 개발 : 14개 시군의 깃대종을 바탕으로 상징물을 개발하고 지역특성, 색채이미지 등을 적용하여 기념품 및 상품개발

7) 14개시군 생태관광지 패스라인 구축방향

- 생태관광지 패스라인 구축방향 :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 시스템과 연동시키되 생태관광지 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전용 브랜드인 “에코패스라인(Eco-Pass Line) 제작·발권
- 생태관광패스의 개발 : 주요 공간시설 관련 입장료 할인, 시설의 자유이용, 각종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주변 관광지 입장료, 맛집, 숙박 등 특별 할인 서비스로 구성
- 생태관광 패스의 제작 및 판매 : 휴대가 편한 쿠폰북 형태의 생태관광패스북 제작, 시군 관광안내소를 이용한 오프라인과 소셜커머셜 등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

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평가지표개발(2016. 9)4)

-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 연구를 통해 사업준비도, 집행효율성, 운영가능성으로 구성되었으며 22개 소항목으로 설정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4단계로 설정함

〈표 3-2〉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주요 평가내용
사업 준비도	사전점검요인	사업실행계획의 충실성 정도,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차기년도 계획 준비도
	사업의 특화성	생태관광개발 컨셉 적용여부, 조성컨셉의 특화성 정도, 경쟁력있는 콘텐츠 확보
집행 효율성	사업집행실적	예산집행실적, 예산이월시 이월의 적정성, 계획과 공정의 일관성, 생태관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사업추진력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여부,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운영 가능성	관리운영의 적정성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 노력, 시설관리의 적절성 유무, 홍보프로그램 추진여부
	지역주민 참여	지역주민 참여체계 구축, 시·군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행정과 주민간 협력체계
	파급효과	방문객 유치 효과, 지역소득 및 일자리 창출, 생태자원 가치 증대

〈표 3-3〉 단계별 적용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항목	평가단계				평가 방법
			1단계 (1년차)	2단계 (2년차)	3단계 (3~5년차)	4단계 (6년차 이상)	
사업 준비도	사전 점검 요인	사업실행계획의 충실성 정도	○	○	○	○	정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인허가, 사업부지 확보 등)	○	○	○	○	정량
		차기년도 계획 준비도	○	○	○	○	정성
	사업의 특화성	생태관광개발 컨셉 적용 여부	○	○			정성
		조성 컨셉의 특화성 정도	○	○			정성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	○			정성
집행 효율성	사업 집행 실적	예산 집행실적	○	○	○	○	정량
		예산 이월시 이월의 적정성		○	○	○	정성
		계획과 공정의 일관성		○	○	○	정량
		생태관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	○	○	정량
	사업 추진력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여부	○	○	○	○	정성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	○	○	○	정성
운영 가능성	관리 운영 적정성	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	○	○	○	정량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 노력		○	○	○	정량
		시설관리의 적절성 유무				○	정성
	지역 주민 참여	홍보프로그램 추진여부	○	○	○	○	정성
		지역주민 참여체계 구축	○	○	○	○	정성
		시군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	○	○	정량
		행정과 주민 간 협력체계		○	○	○	정량
	파급 효과	방문객 유치 효과				○	정량
		지역소득 및 일자리 창출				○	정량
		생태자원 가치 증대	○	○	○	○	정성

4) 전북연구원,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16.9

- 지표는 매년 평가과정을 통해 전문가와 시군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지표 9개 항목으로 설정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표 3-4〉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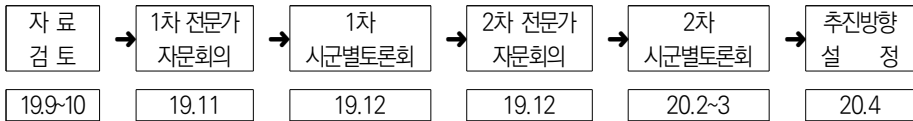
항 목	배 점	내 용
사업 계획성	45점	생태자원 특화성, 사업 효율성, 계획 충실성
추진 적극성	30점	예산 집행실적, 사업 활용성(프로그램 운영), 추진의지
운영 가능성	25점	홍보, 지역주민 참여, 파급 효과

〈표 3-5〉 평가항목 및 내용

대분류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 내용
	중분류	소항목		
사업 계획성 (45)	특화성 (10)	경쟁력 있는 생태자원(10)	정성	① 생태관광 컨셉 확보 노력(5) ② 지역 생태자원의 특화성 및 우수성(5)
	효율성 (15)	기존 추진 사업의 효율성(15)	정성	① '16~'18년 추진사업의 효율성(활용도)(10) - 방문객, 활용도, 향후 발전가능성 - 추진사업 관리현황 (수목·자연탐방로 조성 등 유·무관리 예산 편성 등 관리) ② 추진사업간 연계성(5)
	충실성 (20)	사업계획 충실성 (20)	정성	① 생태관광 사업계획(종합계획) 구체적수립(10) 사업내용 충실성, 취지 부합성, 집행가능성 등 가이드라인 적용(기본시설 설치기준등) ②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계획 수립 구체성(10) -전년도 설계발주 및 년초 사업발주 등
추진 적극성 (30)	집행액 (10)	예산 집행실적(10)	정량	① '16~'18년 사업비 대비 예산 집행율(10) - 상위 2위(S), 3~5위(A), 6~8위(B), 8~10위(C), 11~12위(D)
	활용성 (10)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10)	정성	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10) - 자체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실적(5) - 센터주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실적(5)
	추진의지 (10)	지자체 추진의지(10)	정성	① 자체 컨설팅단 운영 (3) ② 자체운영비 및 관리 인력 확보(4) ③ 타 부서와 연계협력, 지자체 추진의지(3)
운영 가능성 (25)	홍보 (10)	생태관광지 홍보(10)	정량	① 연간 홍보 실적(전라북도 생태관광지) - 자체 홍보물 제작(2) - 언론보도,페북,자체홈페이지 등 홍보(2) ② 생태관광지 안내체계 구축 - 피플카운터기 설치 여부(2) - 종합안내도(2), 이정표(2)
	지역주민 참여 (10)	주민교육 참여 및 가능성(10)	정량 정성	① 에코매니저 양성 및 활동 현황(5점) - 에코매니저 교육현황(2) · 7명이상 2, 그 외 1 - 에코매니저 활동현황(3) · '18년기준 : 20회이상 3, 10~19회 2, 10회미만 1 ① 협의체 구성(2) ② 자체 운영가능성, 주민역량 등 (3)
	파급효과 (5)	방문객 유치 및 소득증대(5)	정성	① 생태관광지 방문객 및 소득증가 ② 투어패스 연계 관광상품 등

2. 시군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

- 본 자료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2016~2019)」자료, 1, 2차 시군별 토론회(19.12, 20.2~3),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 됨



가. 전주시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삼천천 일원
- 사업비 : 900백만원(균특 400, 도비 300, 시비 200)
 - 15~16년 사업비 : 900백만원(균특 400, 도비 300, 시비 200)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4	반딧불이	반딧불이 하천숲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반딧불이 홍보관, 생태탐방센터, 탐방로, 생태경관조성 등	반딧불이 체험 농촌체험

- 연도별 추진사업

사업년도	추진사업	사업비(단위:백만원)
16년	• 자연생태홍보관 조성	8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중으로 평가 불가
- 2017년 :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 미추진, '17년 예산 미확보, 사업조기종결

나. 군산시 청암산 에코라운드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군산호수 및 청암산 일원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시비 1,800)
 - 15~19년 사업비 : 3,500백만원(균특 1,700, 도비 950, 시비 850)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3	가시연 원앙 → (변경) 가시연	사랑(원앙)과 행운(가시연)이 찾아오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가시연 서식 복원 힐링편백숲 조성 꼬마숲 놀이마당 방문자센터 신축	생애주기 맞춤형 숲 체험 편백림 산림 치유 구불길 연계 트레킹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제방원양길, 친환경 화장실, 꼬마숲 놀이마당	800
2017	청암산 생태주차장, 힐링편백숲, 생태연못 및 관찰데크, 대나무 생태학습장	800
2018	생태습지 복원, 야외학습장, 잔디스탠드, 트리하우스, 조류관찰대	800
2019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설계	1,0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생태계 보존이 우수한 도심권 생태관광지로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대중관광지로 발전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 2017년

- 도심지 주변 특성을 반영하고 타 부차사업(농림부 중심지활성화)과의 중복사업의 조정과 불필요 사업의 정리가 필요함을 제안함

○ 2018년

-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한 사업(대나무숲, 편백숲, 꼬마숲 등)이 추진중에 있음. 주요 타켓층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9년

-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방안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자센터 설계시 친환경적이고 선도적 추진을 제안함. 인위적사업(에코브릿지, 야생화단지 등) 제외를 요청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호수, 길, 깃대종(가시연) 등 생태관광자원이 우수하고 관련 기반시설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원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계획 추진은 미흡함
- 도시형생태관광지로 육성하여 기존 전라북도내 타 생태관광지와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며 깃대종(가시연)과 같은 주요 생태관광자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생태습지, 화장실, 놀이마당, 쉼터 등의 조성과정에 훼손된 자연성이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조성시 정수설비 원형 일부분을 보존하여 과거 상수원으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기획이 필요함
- 2020년 예정되어 있는 생태체험센터건립시 생태적 차별이 고려된 외관디자인, 에너지 재활용 환경인증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마을주민, 에코매니저 등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부가 구성되어야 함
 - 마을주민, 에코매니저, 행정 등의 논의를 통하여 향후 운영방안 준비가 필요함
- 수용한계 이상의 방문에 의한 생태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객 수용력 분석이 필요하며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보전과 이용구간으로 구분된 탐방로 운영과 생태탐방로, 일반등산로 등 혼합하게 개설된 탐방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시설의 보완 및 추가시설 설치 계획수립시 지역사회연계 가능성 및 효과,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교육, 체험 등)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에코매니저들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청암산 생태파수꾼 이야기, 청암산 습지탐험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활동으로 청암산 생태관광 홍보를 하고 있음
- 주민이 주도하는 에코매니저 활동에 비해 청암사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해설사, 숲해설사 활동이 활발한 편으로 의지가 있는 주민들의 참여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청암산에 대한 생태자원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생태지도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된 주요자원을 주제료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바이오블리츠사업 추진을 통한 생태자원조사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져야함
- 도심형 생태관광지 특성을 살려 타 지자체 생태관광지와 차별화 시도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 받기 위한 미래비전 수립이 필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환경부 인증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치원·학생 뿐만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주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편백숲, 대나무숲 등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나무, 억새 등을 소재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수 있음
- 농촌중심사업과의 구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청암산과 주변 생태자원(백석제_내륙습지, 하구둑_철새, 어청도_철새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산을 도모해 볼 수 있음

○ 지역공동체

- 주민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한 새로운 정책도입이 필요함
- 8개 마을을 동시에 생태관광지 지역공동체로 육성하기 보다는 한 개 마을부터 주민 역량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만든 후 순차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창출을 고려한 주민 대상의 사업발굴이 필요함

○ 자자체협력

- 행정과 주민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생태관광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암산내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시내에서부터 접근성확보, 생태관광지 이동동선의 순환성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필요함(셔틀버스 운영, 대중버스 노선확보 등)
- 향후 생태관광지 운영주체인 에코매니저, 주민협의체의 소통을 통하여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청암산, 군산호수의 비점오염원 대응 수용력을 고려해 탐방길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계획 필요
- 방문자지원센터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인공섬 등으로 핵심생태자원 관찰 교감 증대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청암산 생태파수꾼 이야기 및 습지 탐험대 등 2개 프로그램의 환경부 저탄소 프로그램 인증 추진
- 군산호수 수생생태자원 표본조사 및 물 속 생태계 프로그램화 구상을 위한 전문 기관과의 협업 필요

○ 지역공동체

- 생태관광 협의체 설립추진 및 옥산면과 회현면으로 구분된 분과위원회 조직화
- 면 단위의 독립적인 마을사업단 조성 및 생태자원을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 사업모델 기획

○ 발전과제

- 국가생태관광지로의 성장전략 로드맵 수립
- 군산의 전북천리길(고군산군도)·새만금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자원 활용방안 모색

다. 익산시 금마 서동 생태공원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일원)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시비 1,800)
 - 15~19년 사업비 : 2,700백만원(균특 1,300, 도비 750, 시비 650)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5.12	자리풀 원앙 → (변경) 원앙	원앙의 비상	에코랏지, 곤충체험관 탐방로, 생태습지 서동선화 이야기길 등	곤충체험 등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금마저수지 수변 습지생태관찰로 조성	800
2017	금마저수지 수변 습지생태관찰로 조성	800
2018	금마저수지 수변 습지생태관찰로 조성	400
2019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2019.12) 식물자연학습원 실시설계 착공(2019.11)	6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생태관광보다는 농촌테마관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 수정이 필요하며 생태관광사업과 연계성이 낮은 수변데크 설치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2017년

-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며 서동공원 관광지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어 대중관광지와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육성이 필요함

○ 2018년

- 서동요 스토리를 활용한 특화 연계전략을 검토할 수 있으며 주요 이용객이 유아계층이므로 수변데크 설치시 아이들을 고려한 데크 색채, 아이들 눈 높이와 체험을 고려한 데크 높이, 아이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원앙은 일부다처의 상징으로 서동 스토리와 연계시 깃대종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깃대종 지속시 원앙 서식처 복원을 위한 생태계복원 프로젝트 필요

○ 2019년

- 금마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20년 이후 사업인 온실, 야생화 학습장을 야외공간과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계획수립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깃대종 선정과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깃대종인 원앙과 생태자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와 주변 연계자원인 서동공원, 농촌테마공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깃대종 및 주요 생태자원이 보전과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태자원기반이 약한 금마저수지에 맞는 생태관광 특화전략(체험, 교육, 보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자연상태로의 보전과 복원 보다는 습지관찰로(데크시설) 조성과 같은 인공적 시설설치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생태관광 목적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수변림조성, 식물자연학습원 조성시 복원종의 서식형태, 탐방 수요층, 주변 연계자원과의 차별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시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될 경관, 새로이 확보될 생태서식처, 탐방객의 쾌적성 등을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층 수요가 높은 만큼 탐방로 및 각종 시설 설치시 체험 및 교육의 용이성과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함

- 2021년 준공예정인 식물자연학습원이 타 지자체 생태관광지 시설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의 내부구성과 외부의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교육 및 체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에코매니저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프로그램은 씨앗과 함께 하는 여행, 시가 자라는 숲 등이 있으며 씨앗 여권만들기, 물새들의 생태환경 설명, 먹이통 만들기 체험, 자원조사활동(조류 조사 및 관찰)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과 연동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기운영되고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향후 개발될 프로그램이 기 조성된 인프라의 보완과 신규 설치를 통하여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물자연학습원이 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에코매니저와의 소통을 통하여 식물자연학습원 설계시 필요 공간 및 인프라 반영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활동과 주민참여가 미흡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에코매니저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가 필요함
- '전라북도생태관광축제'와 같은 사업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 들의 생태관광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협력

- 사업예산집행은 녹색환경과, 운영관리는 농촌활력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생태관광에 대한 전라북도 사업추진 취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성공적 생태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 녹색환경과와 농촌활력과 간 전달체계의 일원화 또는 두 과간 합리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식물자연학습원(온실형 식물체험관) 건축수정계획 추진 시 지속적 논의 필요
- 명확한 생태자원 관리체계 인식을 통해, 보전·관리·이용구역에 대한 체계정립 및 구역설정 필요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공간인프라 조성 중심의 현행 사업추진체계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생태자원 교육·관리·운영의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공동체 주도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생태관광 협동플랫폼 도입 필요

○ 지역공동체

- 익산시의 생태관광지 사업계획 재검토 후 공동체 논의 가능
- 2020. 6월 이내 공동체를 포함한 익산시 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수립 2차 토론회 재추진

○ 발전과제

- 익산시 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수립 2차 토론회 재추진
- 생태자원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기능을 통한 생태자원의 서식환경을 잘 조성해 익산형 생태관광 정체성(컨셉)을 확립하고, 인근 문화관광자원이 연계하는 확장적 전략수립 필요

라. 정읍시 솔티 달빛 생태숲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정읍시 송산동, 쌍암동 일원 4.5km²/대표지점 솔티마을 주변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시비 1,800)
 - 15~19년 사업비 : 2,920백만원(균특 1,410, 도비 805, 시비 705)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3	진노랑상사화 단풍 비단벌레 → (변경) 비단벌레	즐겁고 신나는 에코편파크	스카이워크 방문자 센터 에코편 로드 등	저탄소 생태탐방프로그램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정읍생태숲 여는 문(내장생태탐방마루길) - 탐방데크 L=269m, B=2.5m	800
2017	• 정읍생태숲 여는 문(내장생태탐방마루길) - 탐방데크 L=269m, B=2.5m	800
2018	• 생태탐방로 조성(솔티숲 옛길 복원) - 조각공원~솔티마을(2.0km)	500
2019	• 월영습지 탐방로 (월영마을~월영습지) • 솔티숲 생태체험장 • 마을 안내판	72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보전보다는 활용측면이 높은 계획으로 일반관광사업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생태자원에 기반하여 에코편 주제를 특화시키고 마을 주민의 참여,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이 이루어져야 함

○ 2017년

-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태관광 컨셉이 부족하며 내장호 중심에서 월영습지와 마을 중심으로 사업의 중심축 변경이 필요함

○ 2018년

- 지역 주민의 협약체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생태관광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지구로 육성되고 있음

○ 2019년

-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이후 주민협약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더욱 발전되고 있음. 방문자센터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위적 사업(달빛 습지복원, 생태체험장 등)은 제외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에코편파크사업, 솔티달빛생태숲사업 등 생태관광기반으로 생태자원의 물리적 연결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생태관광사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월영습지와 월영마을, 솔티마을, 에코편파크 등 생태관광자원간 연결성 확보 필요
- 추진과정에 초기컨셉을 변경하여 생태관광기반이 적절하게 조성되고 있음. 깃대종(비단벌레)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함
- 우수한 마을경관과 자원이 원형을 잃지 않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이후 월영습지와 인근 마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생태자원에 대한 보전 및 관리 등이 포함된 미래 정음생태관광에 대한 새로운 플랜이 필요함
- 돌담 및 우물, 화전민터, 천주교 박해터 등 연계자원의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생태관광기반 시설중 타 지역과 유사한 시설들의 경우 탐방객이 쉽게 식상해 할 수 있음. 따라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유사시설들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함

- 내장산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구분되어야 하며 방문자센터 건립시 생태적 랜드마크 만들기 위한 컨셉과 주제가 필요함. 방문자센터가 마을입구에 위치하게 되면 건축물의 디자인 및 이미지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게 되므로 친환경적 설계 및 조형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이 고려되어야 함
- 핵심자원인 월영습지와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생태자원에 대한 자원지도맵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 및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에코매니저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프로그램은 보타낙원정대, 에코버딩, 솔티마을 생태밥상(하늘두레상) 등이 있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농촌관광이 혼합된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어 내장산 및 월영습지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생태관광 고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방문자자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프로그램 및 지도자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보타낙원정대와 같은 농촌관광과 차별화된 생태체험프로그램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공동체

- 국가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모시떡 및 밥상 운영, 솔티달빛축제 등 마을단위 기획으로 공동체 역량이 높아짐
- 인적자원들이 비교적 우수한 생태관광지로 주민협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음. 사업의 확산 및 주변 마을과의 상생을 위하여 월영마을, 부여마을 등 주변 마을과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생태관광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합리적 분배와 공동체 갈등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새로운 협의체계 도입 필요

○ 지자체협력

- 시 담당부서의 사업추진의지가 높으며 주민 공동체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사업추진시 생태관광 컨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위적인 인프라 및 경관조성 지양하는 관점유지가 필요함
- 월영습지가 정읍시 관광의 중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솔티마을과 월영습지에 인접한 마을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내장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생태자원공유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생태관광 방문자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정체성 확보 필요
- 솔티숲과 월영습지를 연계하는 생태통로 기획 및 향후 기반시설 검토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현재 솔티숲 기반의 보타낙원정대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 내장산국립공원-생태탐방원-솔티마을을 연계한 자립형 프로그램 개발

○ 지역공동체

- 기존 협업체 및 협동조합의 갈등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전북형 협동플랫폼(협업체 및 마을사업단) 조성으로 활성화 체계구축
-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및 수익성 추진, 생태자원 기반의 정읍형 수익모델 창출

○ 발전과제

- 국가생태관광지로서 전북형 생태관광을 상징할 수 있는 성장모델로의 추진체계 구축
- 생태자원의 교류를 통한 도·농복합형 생태관광지로서 정체성 확립 및 문화관광 역량확장

마.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일원(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사관 중심)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시비 1,800)
 - 15~19년 사업비 : 4,000백만원(균특 1,950, 도비 1,075, 시비 975)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5	히어리 수달 → (변경) 수달	오색자원 오색길 백두대간 “화수목금달” 운봉 생태고원	에코루트지, 탐방로 덕산호수 생태공원 로컬푸드 프로젝트 “백두백식 마켓”	생태탐방 프로그램 백두대간 아카데미 생태관광상품 (기획마케팅)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에코루트지 조성 : 4개동 7실	800
2017	• 생태탐방로 조성 • 모험체험시설, 쉼터 • 안내판 설치 등	800
2018	• 생물테마체험전시시설	1,300
2019	• 전시관 주변 조성 • 생태온실 리모델링	1,0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인접지역에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산 둘레길이 지나고 있어 탐방객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변 마을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됨
- 주민주도형의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운봉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대중관광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2017년

- 관광개발적 투자보다는 둘레길 중심의 마을자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조정

○ 2018년

- 생태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외에 백두대간 테마를 활용한 사업 발굴, 인근 화훼농가 등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주민참여 유도 등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2019년

- 행정주도 생태관광 추진으로 백두대간 테마 활용 및 주민연계, 프로그램 미흡
- 조성중인 생물전시체험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및 야외공간을 활용한 생태교육공간 확장 및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가 필요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생태관광 핵심 자원인 백두대간의 생태관광기반 및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반영과 관 주도의 사업진행으로 마을과 주민의 참여가 미흡함
- 깃대종과 주요 생태자원과 연계된 시설 구축 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
- 전시관람 중심에서 체험과 참여, 교육중심으로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며 남원 생태관광지의 정체성 확보(자원보전 및 복원, 교육 및 체험 등)가 필요함. 필요시 정체성 강화를 위해 생태관광컨셉에 맞는 깃대종의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하드웨어(조성사업)

- 에코루지, 생태탐방로, 생태온실 등 설치된 생태관광기반시설이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옥상 및 벽면녹화, 동물복지 등의 테마 도입이 필요함
- 설치된 생태관광기반시설의 인위성 배제를 위해 친환경적 자연생태기반(옥상 및 벽면녹화, 동물복지 등)구축을 위한 접근 노력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백두대간생태전시관 내에서 곤충표본만들기, 자개거울만들기 등 실내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올빼미가 생태자원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새로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예상됨
-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로부터 마을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하였으나 확대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에코매니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치마을 생태체험!’(2018), ‘속~속~ 백두대간 쓱쓱알기!’(2019)
- 기반시설을 이용한 체험 및 숙박 프로그램과 더불어 먹거리, 자연생태 체험 등의 개발이 요구됨

○ 지역공동체

- 노치마을 주민 고령화 및 참여의지 부족으로 생태관광지 사업의 주민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마을주민의 고령화 및 낮은 참여의지에 의한 공동체 형성이 어렵거나 에코매니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거나 백두대간생태교육전시관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지자체협력

-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드웨어(환경과), 운영(산림과)로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간 협업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의 국비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입가능시설이 생태관광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환경과(하드웨어구축)와 산림과(관리운영)로 이원화된 행정체계의 일원화 또는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추가 확보된 부지로 생태관광사업 확대시 전라북도 및 전북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와 협의과정 필요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남원시 생태관광 기반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가족단위 중심으로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공동체

- 새로운 사업주체가 될 공동체 조성이 필요함
- 남원시 내 생태관광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공동체 방식 검토

○ 발전과제

- 남원시 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수립 2차 토론회 재추진
- 지리산을 기점으로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계하는 남원형 생태관광지의 정체성 확립

바. 김제시 벽골제 생태농경원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137-2번지 일원(벽골제 생태농원 내)
- 사업비 : 2,300백만원(균특 1,100, 도비 650, 시비 550)
 - 15~19년 사업비 : 2,300백만원(균특 1,100, 도비 650, 시비 550)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1	갈대 물억새 참붕어 → (변경) 참붕어	농경문화체험	생태자연마을 생태농경원 생태탐방로 등	농경문화체험 생태농업체험 놀거리 체험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농경탐방로(2.5km) • 야생화군락지(12,300㎡) • 목교, 야외무대, 전망대	800
2017	• 농경탐방로(2.5km) • 야생화군락지(12,300㎡) • 목교, 야외무대, 전망대	800
2018	• 농경탐방로(2.5km) • 야생화군락지(12,300㎡) • 목교, 야외무대, 전망대 ('16~'18년 추진)	-
2019	• 원평천 생태탐방로 • 신탄미산 숲정원	6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생태관광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생태자원 조사 및 지역주민 협의체 참여 방안 등 생태관광에 중요한 개념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MP내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

○ 2017년

- 벽골제와 연계된 관광지 개발사업 성격이 강하며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16년 사업 미추진, ’17년 예산 미확보)

○ 2018년

- 하중도의 특성을 살린 교육 체험장 조성,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농경체험 등의 사업 추진 필요

○ 2019년

- 기 추진사업과 연계한 논습지, 경관 활용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사업방향이 불확실하여 신규 투자는 지양함이 바람직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농경 생태경관 자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차별화된 경관 매력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대중관광지화 되어있는 벽골제와 차별화하여 생태관광지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관자원 만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전통 생태지식에 기반한 농경문화 콘텐츠의 보강이 있어야 함
- 지속추진시 전반적인 생태관광 마스터플랜 재수립이 필요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생태탐방시설과 생태관광연계시설 조성이 미진하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구획 불명확 및 사유지의 높은 비율로 인해 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농경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식생을 탐방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설도입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생태관광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미비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
- 생태관광기반시설에 따른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이 재수립 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

- 주민대상 에코매니저가 육성되어 있으나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육성된 에코매니저들의 생태관광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기 조성된 생태관광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활동성을 높이고 협의체 구성 및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지자체협력

- 행정과 에코매니저(단아마을 주민)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문화재 1급지역 주변,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대상지의 높은 사유지 비율, 하천부지의 활용에 따른 하천사용허가 등이 생태관광사업 추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추가 생태관광기반시설 조성 여부, 사업추진의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신털마산 중심으로 하중도 좌측 생태자원과 우측의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속가능성 확보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논 습지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농경체험(물고기농법) 프로그램 개발
- 신털마산을 기반으로 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공동체

- 2차 중장기 전략수립 토론회를 기반으로 시 행정과 마을 간의 관계 개선
- 마을공동체의 의지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동력 확보

○ 발전과제

- 생태관광지 인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연계방안 마련 및 농생명 생태자원으로서 생태농경원의 정체성 강화

사. 완주군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일원
- 사업비 : 4,000백만원(균특 1,950, 도비 1,075, 군비 975)
 - 15~19년 사업비 : 4,000백만원(균특 1,950, 도비 1,075, 군비 975)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5	복수초	무병장수 기원과 봄의 미소가 숨겨진 싱그랭이 에코파크	생명의 숲, 생태숲 연화공주 정원 생태트레킹 코스 양묘장 및 탐방로 생태관광체험센터	전통의식체험 음식 맛보기 생태마을 영상 사진전 오복기원 체험 감각기 및 짚신 엮기 체험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연화공주정원 • 생태트레킹코스 조성	800
2017	• 싱그랭이 숲 조성(5,000㎡)	800
2018	• 유리온실(에코정원) 조성(생태카페 등 포함)	1,500
2019	• 체험장 조성 및 마을 진입로 정비	8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농촌마을사업 등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어 주민의 역량이 높고 화엄사, 야생화군락지 등 생태자원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져 생태관광지로서 발전잠재력이 높음

○ 2017년

- 마을추진 주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강하여 체계적 지원시 조기성공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 화암사 등 우수한 역사·생태자원을 생태관광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지가 적극적이나 농촌소득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

○ 2019년

- 기 투자된 인프라에 대한 운영 관리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되며, 향후 신규 예산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싱그랭이 마을을 스토리텔링화하기 위한 화암사 야생화 단지, 원예 및 약용림 등 생태관광기반시설이 광범위하게 조성됨. 무병장수 기원과 봄의 미소가 숨겨진 싱그랭이 에코파크라는 기본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싱그랭이숲 조성을 위해 식재된 나무 및 식물들이 정착하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마을앞 생태자원인 노거수의 친환경관리를 위한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함
- 마을의 한정된 인력으로 광범위하게 조성된 생태관광기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생태온실(에코정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공간 구성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에코매니저가 운영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싱그랭이숲과 화암사를 잇는 비밀의 숲 프로그램, 싱그랭이 마을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음. 특히 먹거리(두부체험) 프로그램이 안정적이 운영되고 있어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아이템 구상이 필요함
- 생태온실의 준공으로 탐방객 및 주민을 위한 새로운 체험 및 교육공간이 확보됨. 생태관광기반시설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발굴과 주민 참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지역공동체

- 마을에 구성된 마을총회, 산림위, 싱그랭이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은 싱그랭이영농조합법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지와 공동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마을내 구성원간 상이한 지향점으로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지자체협력

- 농촌마을만들기 사업과의 혼용 추진 방지, 생태관광추진으로 인한 마을내 협의체간 갈등관리, 생태관광기본시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기 조성된 커뮤니티 센터(싱그랭이 체험장)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필요
- 에코정원 내부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이를 토대로 마을사업단의 사업화 모델 도출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싱그랭이 에코정원 온실관리교육 및 온실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개발 진행
- 기존 화암사·에코정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 및 싱그랭이 숲 활성화, 두부체험의 생태적 요소 보완

○ 지역공동체

- 싱그랭이 영농조합법인과 산림회 법인의 마을 내 갈등요소가 강화되어, 공동체 운영방식을 전복형 생태관광 협동플랫폼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 향후 새로운 공동체 활동에 의해 지속가능성 확보(수익모델 창출)

○ 발전과제

- 생태관광지로 조성된 싱그랭이 숲의 효용성 강화방안 마련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 강화)
- 생태관광형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 양립과 생물다양성 확보전략 도출

아. 진안군 지오파크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진안군 진안읍 은천마을~마령면 동촌리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군비 1,800)
15~19년 사업비 : 2,800백만원(균특 1,350, 도비 775, 시비 675)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6	물고기 (상어)화석 → (변경) 줄사철나무	태고의 자연과 인간의 교감 지오파크	생태탐방로 생태우수마을 체험센터 등	지오파크 축제 및 10여개의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사자골 지질탐방로 • 생태쉼터 조성(수선루), • 자전거 탐방로 정비	800
2017	• 화전교 지질생태탐방로	800
2018	• 화전교 지질생태탐방로('17~'18년 추진)	300
2019	• 지오 생태숲 복원 (은천마을)	8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생태관광 핵심자원인 지질자원과 생태관광기반시설 및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간 연관성이 약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역할이 미흡함. 핵심지역을 선정하여 집중화하고 지질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2017년

- 광범위한 사업지역으로 생태자원을 활용한 컨셉이 부족함. 은천과 인근 마을 중심 사업으로 변경 검토 필요

○ 2018년

- 마이산 내 탐방데크 등 인위적인 사업 대신 오솔길 조성을 추진하고 은천마을 및 원동촌마을의 마을숲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검토 필요

○ 2019년

- 은천마을숲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지질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탐방로는 지양하고 지질생태체험센터는 지질공원 지정이후 고려됨이 바람직 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국가지질공원인 마이산관광지와 연계하여 주변의 자연생태가 우수한 전통마을을 주요 자원으로 한 것은 좋으나, 지오의 컨셉이 사업내용에서 반영되는데는 미흡함
- 진안 마이산 주변의 전통 마을 숲을 발굴하여 마을숲 탐방, 마을숲 관리주체인 마을 탐방을 주요 컨셉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하드웨어(조성사업)

- 기 조성된 사자굴 지질탐방로, 자전거탐방로, 섬진강 생태쉼터 등의 생태관광기반시설이 탐방객의 이동동선에 대한 사업이 주류로 부가가치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은천마을과 다소 거리가 있어 생태관광진흥 프로그램과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오 생태숲 복원시 전통적인 모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추세인 벽화 및 과도한 이정표 등 마을의 경관색을 저해하는 원색의 사용, 도화적인 글자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0년 방문자센터(마을창고 활용)가 마을의 랜드마크 및 교육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마련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은천마을 숲길에서 시작되는 마이산 옛길, 은천마을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음. 전문 에코매니저의 참여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민주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변화가 필요함
- 보존이 우수한 마을 자원(노거수, 돌담, 마을숲, 마을가옥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산촌문화탐방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탐방객 대상 프로그램 발굴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익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이 선제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

- 은천마을과 원강정마을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생태관광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주민참여의지 높은 마을을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이후 주변 마을로 확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마을 주민보다는 지질공원해설사와 환경교육 전문인력이 주가 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음. 주민 에코매니저 양성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생태관광사업에 추진 주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

○ 지자체협력

- 마이산 및 마이산 지질공원 지정으로 진안의 생태적 대외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생태관광컨셉과 사업내용이 연계성을 가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천마을과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구축 사업의 재검토 필요
- 마을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체 레스토랑 및 은천마을 에코빌 조성 등 향후 사업계획은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검토 요구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은천마을 숲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강화(사례 : 어린이 유아숲, 숲 놀이터)
- 마이산과 은천마을 간의 천리길·지질공원·생태관광 통합 프로그램 기획/추진

○ 지역공동체

- 마을공동체의 의지를 토대로 협의체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함. 더불어, 에코매니저 및 주민들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추후 마을사업단을 통해 진안형 수익모델 창출

○ 발전과제

- 생태관광지의 명칭 변경을 통한 향후 확장성 검토 필요
- 동부권 산악생태자원 및 농생명 소재자원과의 연계방안 마련

자. 무주군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원
- 1단계 : 반디랜드 전사수족관(반디랜드 內)
- 2단계 : 설천면 청량리 산18번지 일원(백운산 편백숲)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군비 1,800)
 - 15~19년 사업비 : 2,800백만원(균특 1,350, 도비 775, 시비 675)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6	금강모치	반딧불이 있는 청정무주	체험학습장 자연관찰로(탐방로)조성 생태학습장 조성	생태체험 민박 구천동 비경 탐방 무주 생태이야기 아카데미 운영 등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	800
2017	•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	800
2018	•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 (‘16~’18년 추진)	300
2019	•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8.6~19.6) •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자연관찰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19.3~19.12)	8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우수한 생태경관자원인 구천동 33경과 연계한 생태관광지 조성 가능하나 반디랜드 방문객을 위한 연계자원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어 생태관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삼도봉마을 지역협의체의 참여의지가 높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참여 기대됨

○ 2017년

- 사업대상지가 광범위하고 일반관광지 개발 컨셉으로 반디랜드 대상 사업을 축소하고 오지마을 컨셉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 검토가 요구됨

○ 2018년

- 무주의 반딧불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 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새롭게 계획된 백운산 생태숲에 대해 임도내 차량통행 제한과 무리한 시설 조성을 지양하고 자연성이 유지되는 공간계획이 필요함

○ 2019년

- 반딧불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19년 탐방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으로 사업 필요성 및 활용도가 검토되어야 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기 조성된 생태관광기반시설은 무주군의 기본컨셉인 반딧불이와 연계성이 미약함. 따라서 백운산 편백나무 숲에 위치한 계곡 하천을 이용한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함
-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반디랜드가 중심이 되고 있어 생태관광지로서 차별성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무주반디랜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 중심을 옮기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수달입식과 수달관의 외부전시장 확충, 어류 및 양서파충류 시설 설치 등 반디랜드 전시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 종합 동물원테마파크 형식으로 대표관광지 반디랜드에 대한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생태관광지 추진목적 부합성이 약함
- 지역공동체, 지역 주민의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한 반디랜드 외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은 반디랜드 내 실내체험이 주가 되고 있으며 물고기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중이 있음

- 반디랜드의 곤충 및 어류전문가와 함께 기 구축된 생태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색되어야 하며 반디랜드 내 숙박과 야영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물고기채집, 반딧불이 관찰, 바이오블리츠 등)

○ 지역공동체

-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고령화, 전시관 중심의 사업집행으로 주민참여가 제한적임.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의 에코매니저는 1인으로 무주군내 관심 있는 단체 또는 활동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인적자원 발굴이 요구됨

○ 지자체협력

- 대상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질공원해설사, 천리길 해설사, 숲해설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군 주도형의 에코매니저 양성방안 고려
- 사업부지에 대한 산림청 협의 사항 및 활용예정 시설에 대한 농림축산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 반디랜드, 태권도원 등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무주군 생태관광 기반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기존에 개발된 체험 프로그램을 무주군이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시범운영하고, 해당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자립형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보완기간 확보
(반디랜드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및 백운산 편백 숲 탐방로 체험 프로그램)

○ 지역공동체

- 새로운 사업주체가 될 공동체 조성이 필요함
- 무주군으로 확대한 공모형 공동체 방식 검토

○ 발전과제

- 무주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생태관광지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확장력 검토 필요
- 태권도원, 반디랜드, 덕유산 국립공원 등으로 확장 시 생태관광과의 시너지효과 검토

차. 장수군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뜬봉샘생태공원 일원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군비 1,800)
 - 15~19년 사업비 : 4,700백만원(균특 2,300, 도비 1,250, 시비 1,150)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본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3	삿갓나리 이끼도롱뇽 → (변경) 삿갓나리	금강천리 비단물 길의 시작 뜬봉 샘을 가다	뜬봉샘 정비 뜬봉샘 생태공원 수분마을 방문자센터 등 인프라 조성 수분령 복원	①역사를 배우다 (조선건국 역사여행) ②자연을 느끼다(힐링여행) ③생태와 교감하다(이끼도롱뇽탐험대, 동물탁아소, 라온놀이터) ④체험을 즐기다(나도 해설가, 뜬봉 샘 야생화축제, 레드페스티벌 등)

- 연도별 추진사업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뜬봉샘 트레킹 노선 정비 • 생태온실(1차), 나래울마당(1차) • 라온생태놀이터(조합놀이터, 쉼터, 편의시설)	800
2017	• 생태온실(2차), 나래울마당(2차) • 물체험관 생태체험시설 및 복카페 확충	800
2018	• 생태온실(3차), 나래울마당(3차) • 가온누리길(오감체험 학습시설, 생태해설판) • 숲속놀이터(자연 놀이시설, 비오톱 조성) • 수분생태마을 벽화, 한평정원, 마을 생태숲	1,800
2019	• 물체험관 야외시설(물의 광장, 탐방로) 정비 • 생태관광지 방문자센터 조성	1,2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뜬봉샘, 마실길, 조선 건국 등 생태관광 및 역사관광 스토리 텔링 소재가 다양하고
양성된 자연환경해설사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주민 회의가 필요하며 생태관광지 입구에 위치한 수분마을과의 연계가 용이함

○ 2017년

- 명확한 사업 컨셉을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의지 높음

○ 2018년

-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업체 등이 잘 이뤄지고 있음
- 전담팀이 현장에 배치되어,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체해설사를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음

○ 2019년

-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을 주요자원으로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하고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음. 방문자센터, 자작나무숲 등 추가 기반 구축시 생태적 추진이 필요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금강 발원지와 금강물길의 첫마을로 한반도 지붕의 청정 컨셉이 독창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생태관광지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생태 복원 및 마을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장수군 생태관광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깃대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삿갓나리, 이끼도롱뇽이나 하늘다람쥐 같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대표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관리, 금강 첫물길 생태복원 등의 사업이 필요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실내전시관, 실외 온실, 탐방로, 뜬봉샘, 숲 교실 등이 어우러진 휴식과 교육 및 생태관광 복합형 실내외 종합 생태테마파크로 성장함

- 방문자센터 조성시 친환경적 소재와 디자인, 패시브하우스(고지대 동절기 에너지 최소화) 설계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환경교육 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자작나무 생태숲 조성 시 우수한 생태경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뜬봉샘 트레킹하며 사운드스케이프, 수분마을생태밥상, 차로힐링&숲테라피, 어린이 숲배움터, 자유학기제진로탐색 등의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이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2018년(금강 첫물, 뜬봉샘 트레킹)과 2019년(유치원 숲놀이, 책놀이) 환경부로부터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및 에코매니저의 역량을 높이고 있음
- 또한 유아 및 초등생, 일반단체 들의 생태밥상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장수 사과즙, 오미자즙, 토마토즙 등 지역 농산물의 판매로 이어져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있음
- 체험·교육 → 생태먹거리(생태밥상) → 생태숙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체류형 서비스구축이 필요하며 에코매니저 외에 수분공소 주민해설(노인해설)이 도입되고 있어 시간과 대상에 어울리는 해설시나리오가 필요함

○ 지역공동체

- 마을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으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참여 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생태자원 발굴(반딧불이), 도량살리기운동 등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높아짐
-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마을 공동체 운영시 수익배분에 따른 갈등예방과 지나친 수익추구로 인해 생태적 발전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지자체협력

- 군 담당자의 생태관광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열의 있는 정책추진으로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나타냄.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의 제도 및 재정적 협력이 필요하며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기존 기반조성의 인위적 관점을 보완하는 생물자원 중심의 사업계획 검토
-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사업조성 검토(자작나무 숲과 잣나무 숲의 생태적 효용성 강화)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현재의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자립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완 필요
- 핵심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의 역할 조율 및 전문성 강화

○ 지역공동체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협의체 및 마을사업단 설립도출
- 향후 장수형 생태관광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 도출

○ 발전과제

- 금강 시원으로서의 강 자원 효용성 강화 및 금남 호남정맥으로서의 산림자원 활용방안 모색
- 동부권 산악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 연계형 생태SOC 구축

카.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성수산 일원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군비 1,800)
 - 15~19년 사업비 : 4,350백만원(균특 2,125, 도비 1,162.5, 시비 1,062.5)
- 사업내용

수립월	기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2	청실배나무	고려와 조선의 왕을 만든 숲 그 스토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레포츠로드 방문자센터 생태마을 조성	10개 프로그램 구성 - 왕의 등산로, 전망대, 레포츠 로드, 기도터 등 - 고즈넉한 상이암 - 편백나무 힐링공간 - 성수산 자연학교 등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왕의길, 탐방로, 전망대 쉼터, 연못, 힐링로드	800
2017	• 왕의길, 탐방로, 전망대 쉼터, 연못, 힐링로드	800
2018	• 왕의길, 탐방로, 전망대 쉼터, 연못, 힐링로드 ('16~'18년 추진)	1,650
2019	• 방문자센터 설계	1,0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상이암 주변의 생태자원과 휴양림, 태조 이성계 개국 스토리 등의 연계 자원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대상지와 마을간 거리적 간격이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2017년

- 생태관광사업에 맞게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며 성수산 개발사업으로 부지매입이 불확실 함

○ 2018년

- 성수산을 중심으로 타 부서와 연계한 사업계획 추진이 잘 되고 있으며 왕의 컨셉을 살린 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 강화가 요구됨
- 성수산 휴양림의 군 매입으로 2018년 7월 전담팀이 구성됨

○ 2019년

- 성수산을 중심으로 타 부서와 연계하여 생태적 관점을 잃지 않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문자센터와 주민참여가 강화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생태와 역사문화컨텐츠가 조합된 사업지역으로 성수산 휴양림을 군에서 매입하여 관 주도로 성수산을 생태성을 훼손하지 않고 재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여러 부서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생태관광 본래 취지를 잃지 않고 생태관광 컨셉에 대한 초심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생태관광기반시설(주차장, 생태탐방로, 수변데크, 편백숲 등)은 타 부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방문자센터는 환경 친화적 이미지가 담겨질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에코매니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은 에코티어링(왕들의 전쟁), 왕의 숲 생태탐방 프로그램 등이 있음. 에코매니저 협의회를 창립(19.5)하고 환경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시연, 주민간담회, 자원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생태관광기반시설이 조성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숲해설을 역사문화해설 중심에서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이 균형있게 연계되도록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 생태관관진흥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을과 성수산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주민과 에코매니저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초기 관 주도의 성수산 생태관광지 조성에서 장기적으로는 마을과 주민주도의 전환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가 필요함

○ 지자체협력

- 성수산내 교회 소유의 휴양림 부지를 군이 매입하는 등 생태관광지 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 의지가 높으며 군 담당자의 생태관광 이해도가 높은 편임
- 타 부서와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만큼 일관성 있게 생태관광지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방문지원센터 위치에 대한 쟁점 정돈 및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성수산 내 다부처 관광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태관광 정책의 성과창출이 요구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성수산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남쪽에선 에코티어링, 북쪽에선 생태길 탐방 프로그램 진행
- 현재 생태프로그램의 접근성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역량 강화 필요

○ 지역공동체

- 기존 공동체의 추진동력 약화로 인해, 임실 성수산 지역에서 새로운 인적자원 확보 필요
- 전북형 생태관광 협동플랫폼(협업체 및 마을사업단) 추진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모색

○ 발전과제

- 임실군 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수립 2차 토론회 재추진
- 성수산 생태관광지의 정체성 확보 및 타지역과 차별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 구축 필요

타. 순창군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섬진강 장군목(순창군 동계·적성면 일원)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군비 1,800)
 - 15~19년 사업비 : 3,000백만원(균특 1,450, 도비 825, 시비 725)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2	요강바위	자연안에 사람이 하나 되는 섬진강 생태놀이터	자연생태정원 쌔지생태캠핑장 생태탐방, 자연관찰로 다랭이논 꾸불꾸불두렁길 생태관광교육센터 수변생태로	- 자연자원체험 - 농촌문화체험 - 전통 및 마을 문화 체험 등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장군목 수변생태로 조성 : 이팝나무 외 3종, 1,494주 식재	800
2017	•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 안내판, 생태관찰로 정비	800
2018	• 구암정 주변 정비사업 : 백일홍식재, 돌다리	500
2019	• 생태오두막 조성사업 설계	8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순창군을 흐르는 섬진강 주변 생태경관과 옛 주민의 삶(돌담, 흙담, 다랭이 논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3개 인근 마을 중심 협의체 구성 및 지역 생태자원과 주민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 함

○ 2017년

- 생태관광이 아닌 일반관광개발 사업에 가까우며 주요 사업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음

○ 2018년

- 요강바위 등 섬진강의 포토홀 지형의 특색을 살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주민참여가 요구됨

○ 2019년

- 구암정 생태체험공간 보완 등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위적 사업(생태가든, 어류생태관 등)은 지양하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자원인 요강바위 외 사업대상 범위가 다소 넓으며 핵심자원에 기반한 생태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생태관광기반으로 식재된 초화류는 집풀성장과 장마철 훼손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기 설치된 시설 및 향후 설치 될 생태오두막과 생태관광진흥 프로그램의 연계 개발이 필요함
- 추가적인 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기 설치된 시설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에코매니저가 운영하는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으로 구미마을의 밤으로 울병만들기 등이 있음.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청의 용골산 치유의 숲 조성시 생성되는 자원들과 연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핵심 상징물인 요강바위를 활용하여 하천내 바위형성 과정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생태관광컨셉의 일관성 확보가 요구됨

○ 지역공동체

- 주민참여의지가 부족하여 협의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관광프로그램과 겹치거나 대중관광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생태관광으로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주민협의체 구성과 에코매니저 육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실행이 요구됨

○ 지자체협력

-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중심의 사업에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섬진강 수생자원 관찰이 가능한 키오스크 전시시스템 구축
- 용골산 치유의 숲 안내센터 공간 내 생태관광 방문자센터 기능추가 논의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장군목 중심의 섬진강 수생생태자원 관찰프로그램 기획·개발 추진
- 섬진강 주변 자원을 포함한 생태자원지도 제작

○ 지역공동체

- 현재까지 공동체 조성의 어려움 속에서, 향후 발전계획에 따라 공동체 범위를 넓히는 방향도 가능하도록 협의

○ 발전과제

- 기 조성된 생태관광 자원의 관리 및 지속성 유지
- 섬진강 주변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파.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25번지 일원(람사르 운곡습지)
- 사업비 : 7,300백만원(균특 3,600, 도비 1,900, 군비 1,800)
 - 15~19년 사업비 : 4,700백만원(균특 2,300, 도비 1,250, 시비 1,150)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5.12	낙지다리 은사시나무 → (변경) 삶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탐방로개설 생태마을조성 탐방객 편의·안내시설 생태관찰시설 경관시설정비 생태체험학습장 등	습지탐방열차 누에막이주기 생태음식만들기 에코천연염색 짚신만들기 등

- 연도별 추진사업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6	• 생태탐방로 (L=19.4km) • 탐방객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 호암마을 목교 등 설치	800
2017	• 생태둘레방소공원 • 하천유지용수 기반시설 • 가로수식재, 꽃길조성	800
2018	• 탐방지원센터, 생태광장 • 파고라, 꽃길(고인돌공원) • 산책로, 전망대(공원내)	1,800
2019	• 사색길 생태탐방로 • 생태숲 체험시설, • 생태하천 관찰장	1,2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다년간의 생태관광 사업 추진으로 주민역량이 높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하나 용계마을 외 주변 5개 마을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법 필요

- 생태자원의 이해가 높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추진으로 생태관광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운곡습지 탐방로 별 차별화된 생태 콘텐츠 연계 필요함

○ 2017년

- 5개 마을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조정 추진하고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관광지역으로 기
투자가 많이 이뤄진 만큼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 필요

○ 2018년

- 국가생태관광지역의 성공모델인 용계마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운곡습지 주변 마을과
연계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생태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및 특색을 갖춘 사업이
추진중 임

○ 2019년 검토

- 운곡습지 중심의 기반구축과 마을과 연계하여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생태관광 선도지역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기 추진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보완 방안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관리 추진이 필요함

3) 종합진단

○ 생태관광컨셉

- 람사르습지로 알려진 고창은 전북 생태관광의 좋은 모델로 평가 받고 있음. 환경부 등
여러 부처 사업의 중복 투자로 인한 인위성이 높은 생태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운곡습지 중심의 예산 투입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사업추진으로 전환이 필요함

○ 하드웨어(조성사업)

-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탐방지원센터 등 생태관광기반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람사르 운곡 휴스호스텔이 준공되어 프로그램 운영 및 숙박을
위한 기반이 구축됨
- 향후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람사르습지 및 생태관광지 취지에 맞는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으로 용계 오디&누에체험, 용계마을 체험프로그램, 용계마을 생태법상, 호암마을 체험프로그램, 호암마을 생태법상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자연환경해설사 및 에코매니저를 중심으로 다양한 탐방체험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음.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수보다는 질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따라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한 습지, 숲을 주제로 한 학습과 개발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 다년간의 지역협의회 및 생태관광협의회 등 생태관광에 대한 경험적 학습이 있어 주민 참여도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 자연환경해설사 및 에코매니저 등이 주민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인적자원의 육성이 증가되고 있음
- 운곡습지 주변 6개마을의 균형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자원체계가 필요함

○ 자자체협력

- 생태관광사업에 대한 군 담당자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가단위의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생태관광취지에 맞는 생태관광기반 및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4) 개선방안

○ 하드웨어(조성사업)

- 기 조성된 생태공원과 에코촌 및 6개 마을 간 접근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검토
- 핵심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서식지 보존사업 추진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 에코촌(유스호스텔)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개발
- 기존 프로그램의 변별력 강화 : 핵심생태자원(운곡습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공동체

- 국가생태관광지에서 국제인증 성장전략에 따른 공동체 플랫폼 창출
- 기존 협의체 구성의 갈등요인으로 인해, 전북형 협동플랫폼으로서 협의체 및 마을사업단 조성

○ 발전과제

- 핵심생태자원인 운곡습지를 둘러싼 6개 마을들이 공유하는 생태관광 협동모델 구축
- 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임으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핵심생태자원 - 갯벌지질자원 - 해양 생태자원의 연계성을 구축해 고창형 모델로서 국제적 생태관광지 발전전략 확보

하. 부안군 신운천 수생생태정원

1)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MP) 및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부안군 신운천 일원
- 사업비 : 1,700백만원(균특 800, 도비 500, 군비 400)
 - 15~17년 사업비 : 1,700백만원(균특 800, 도비 500, 군비 400)
- 사업내용

수립월	깃대종 (상징물)	컨셉	기반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16.06	호랑 가시나무 검은머리물 떼새	수생정원	생태하천(신운천) 주변 자생식물 및 수생식물 식재 등	부안생태환경투어 생태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생활속 예술 콘텐츠 창작 자생식물 학습장

- 연도별 추진사업

사업년도	추진사업	사업비(단위:백만원)
16년	• 깃대종 서식지 조성 • 수생생태 탐방공간	800
17년	• 수생태정원 • 생태습지, 휴식공간	800

2) 연도별 사업평가 결과

○ 2016년

- 농경지에 인위적인 생태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생태관광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주민 주도가 아닌 행정과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어 주민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미흡함

○ 2017년 검토

- 인위적 개발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 대상지 변경에 따른 MP수립 등 사업 준비기간 추가 필요
- 사업조기종결

3. 시사점

가. 사업성과분석

1) 생태관광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유형

○ 행정중심 공동체참여형 사업추진

- 장수군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는 사업초기 계획수립 부터 현재까지 행정이 진행상황 전반을 주도하고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에코매니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생태밥상운영, 마을해설사 등 주민들의 참여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는 군이 교회(전주소재) 소유의 휴양림을 매입하고 성수산 종합계획 하에 생태관광 관련 중앙부처 사업들의 재원을 확보 등 생태관광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사업자와 마을간 이격거리로 인한 지역공동체 참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의체 활성화와 에코매니저 육성을 위해 노력중임
-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이 사업전반을 주도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모형으로 사업 종료시 까지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공동체중심 행정지원형 사업추진

- 정읍시 솔티달빛생태숲은 송죽마을의 솔티마을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에코매니저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보타닉원정대, 에코버딩 등), 지역상품판매(모시떡 등) 및 생태밥상 운영 등의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으로 생태관광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생태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음
 - 국가생태관광지정 등으로 공동체와 행정의 상호협력체계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솔티생태관광협동조합(2018.3.13.)을 설립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마을 공동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완주군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은 요동마을의 싱그랭이영농조합을 중심으로 농촌마을 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주민주도형의 사업을 추진함. 타 시군에 비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2019년 종료하였으며 2020년 부터는 생태관광진흥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추진과 생태관광중심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인 출범을 계획하고 있음. 행정은 주민주도의 생태관광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두 지자체는 마을사업 경험과 기 조직된 마을협의체를 기반으로 생태관광사업을 주민주도하에 추진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행정과 상호 협력하여 생태관광사업을 이끌고 있는 모형으로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기반 사업추진

- 고창 운곡습지는 1980년대 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냉각수공급을 위해 9개마을이 이주 하면서 남겨진 폐경지가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과 단절되면서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으로 2011년 환경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되고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인정받음
 -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생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생태관광기반 및 생태관광진흥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과 행정의 참여를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는 1963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45년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습지생태 및 경관자원이 잘 보전되고 수자원이 풍부한 생태관광지임. 도심지에 자리하고 있어 탐방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 투자된 생태관광기반시설들을 이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수한 생태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동선, 수용한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우수한 생태관광지로 인정받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

2) 주요성과

- 풍부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 제2호 국가생태관광지역을 탄생(정읍시, 환경부지정 2018.1)시켰으며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와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시군의 생태관광 이해도가 향상되고 있음
-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사업추진 우수시군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라북도 자체 생태관광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함(정읍시, 2018.10)

〈표 3-6〉 년도별 주요성과

년도	주요성과
2016	○ 풍부한 생태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창출 - 군산시(청암산 에코라운드), 완주군(싱그랭이 에코빌), 장수군(금강발원지 뜬봉샘), 임실군(임금 왕의 숲), 고창군(운곡 람사르습지)
2017	○ 선도모델, 성장지원, 가능잡재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자원관리 추진 ○ 인위적 조성 최소화, 광범위한 사업구간·규모 축소 등 세부사업 조정으로 생태관광 취지에 맞게 사업 보완추가 지원으로 사업 완성도를 제고함
2018	○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결실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창출 - 전라북도 제2호 국가생태관광지역 탄생(정읍시, 환경부지정 2018.1.) ○ 지속적인 컨설팅 및 사업보완 등을 통해 시군의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생태관광 취지를 살린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 생태관광지 사업비 이 외에도 시군에서 타 사업과의 연계 및 자체 시군비 확보 등을 통해 S/W부분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민교육 및 해설사 양성교육 등을 통해 지역간 정보공유 및 핵심리더 역량강화가 이뤄지고 있음
2019	○ H/W 기반구축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지별 S/W(프로그램) 발굴과 에코매니저를 통한 운영 등 생태관광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음 -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완주, 장수)으로 프로그램의 우수성 인증 ○ 특색있는 우리도만의 생태관광 축제(18.10,정읍) 개최로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향상 및 홍보활동에 크게 기여 - 1회용품 안쓰기, 에코웨딩(금혼식),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자료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내부자료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매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먼저 생태관광컨셉의 중요성과 이에 맞는 생태관광기반구축 및 생태관광 진흥프로그램 운영이 강조되고 있음
- 다음으로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의 생태관광사업 추진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익창출, 주민참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등을 주도할 생태관광형 주민협의체 모형제안이 요구됨
- 그 다음으로 도, 시군, 마을간의 소통,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조직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 년도별 주요 개선방안

년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6	○ 생태관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 인위적인 생태환경 조성, 기반 인프라 구축 ○ 지역주민의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도와 성숙도가 높지 않음 -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증가 - 생태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조성이 어렵고 생태체험프로그램 등의 다양성 적음 ○ 성공적인 생태관광 조성·육성을 위한 도와 시군간의 소통의 기회 적음 - 도와 시·군간의 협업사업임에도 사업추진과정 중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의 공유도 낮음
2017	○ 일반관광개발에 치중한 지역,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시·군을 가능 잠재 지역으로 구분 ○ 성장지원 지역중 사업 보완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시·군은 생태관광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도록 사업 보완 후 MP변경 및 사업추진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사업 명칭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검토 - 성공모델 조기 가시화를 위해 「일률적인 균등」지원에서 「유형별 차등」지원방식으로 전환
2018	○ 확정된 사업비 신속 집행 및 인위적 사업 조성의 최소화 - 분기별 집행을 조사 및 부진시군 사업 독려 추진 - 사업 설계 및 추진시 현장점검 및 향후 재정지원 패널리티 적용 ○ 시군별 깃대종 중심 프로그램 발굴 및 주민참여 확대 유도 - 일부 시군의 깃대종 변경 등이 필요하며, 깃대종을 활용한 사업 발굴 필요 - 행정 중심의 지역협의체가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 추진 -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및 해설사 운영 관리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2019	○ 생태(사회적 가치)와 관광(경제적 가치)의 가치충돌로 인한 혼란 - 생태적 자원보다 그 이외(교육, 주민공동체 등)를 통한 수익 창출 필요 ○ 생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컨셉과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 어려움 - 자연만이 아니라 생태계(Eco-system), 삶이 반영된 자족적 생태 순환체계로 이해하여야 함 ○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조성보다 인재양성이 중요 - 행정 담당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 필요 ○ 행정주도의 생태관광은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자원발굴, 스토리텔링 등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자료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내부자료

4

장

전라북도 생태관광 추진방안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생태관광 정의 및 추진방안
 2. 주민주도 생태관광
 3. 광역 중간지원조직
 4. 예산 및 평가
 5. 전북 통합브랜드 및 지역 랜드마크
 6. 생태관광 관련 국가예산

제4장 전라북도 생태관광 추진방안

1. 전라북도 생태관광 정의 및 추진방안

가. 전라북도 생태관광 정의

- 전라북도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환경 체험·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생태관광의 시작은 생태관광자원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함. 생태관광자원은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생물자원은 동물, 식물 등이며 무생물자원은 지질, 경관 등이 될 수 있음
 - 생태관광자원을 찾기 위해서는 대상 생태관광지에 대한 생태자원(동·식물, 경관 등)에 대한 기초조사, 생태자원과 연계 육성할 수 있는 스토리(역사, 문화 등)자원에 대한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생태관광 기반구축은 생태자원 및 연계자원을 확보하거나 이들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생태관광자원을 확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보전과 훼손된 자원의 복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자원을 보전 및 이용가치 중 어느 측면이 강한지 판단해 봐야 함. 보전가치가 있다면 자원을 중심으로 핵심, 완충, 전이지역을 설정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가치가 있다면 자원을 육성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또한 훼손된 자원을 생태관광자원으로 선정하였거나 연계 필요성이 있는 자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생물자원의 경우 서식지 회복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무생물자원의 경우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 및 복원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생태관광진흥을 위해 생태관광자원과 연계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체험과 교육, 생태숙박, 생태형 먹거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환경 체험과 교육은 각 생태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타 생태관광지와 차별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치유 또는 자연체험 등을 위해 숙박을 원하는 탐방객을 위해 생태관광숙박시설 인증을 받은 생태숙박 운영도 필요함
- 생태먹거리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생태법상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참여 마을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음
- 넷째 주민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특정 민간 기업 또는 행정이 주체가 되는 일반 관광과 달리 생태관광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성공과 실패 효과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협의체구성, 생태공동체육성, 활동가육성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요한 구성 요소임
 - 주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지속적인 교육, 선진사례 견학등으로 참여 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 생태공동체로 육성하여야함
 - 사업 참여주민 또는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에코매니저, 마을해설사 등으로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사업을 책임감 있게 이끌 활동가육성 또한 필요함
- 마지막으로 생태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 예산, 협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조례(2015.10.30. 제정, 2017.8.11개정)을 통하여 생태관광사업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마을주민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시군 역시 지자체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 예산, 협업체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생태관광사업은 사업초기 선정된 생태관광자원과 생태관광기반 및 생태관광진흥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생태관광컨셉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구조화된 주민역량강화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 설정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음



〈그림 4-1〉 전라북도 생태관광컨셉

〈표 4-1〉 생태관광인프라 유형

구분	유형		자원목록
생태 관광 자원	주자원	자연자원	생태자원, 자연환경, 자연현상·기후, 휴양자원, 특이지형, 동·식물
	연계 자원	역사문화 자 원	전통건물, 각종문화재, 무형자원, 유형자원, 경관, 민속놀이, 문화예술 행사, 옛이야기, 문화예술인
		사회자원	농특산물, 방문시설, 도농교류, 마을공동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무 형의 정체성, 공동체활동 등
생태 관광 기반	환경보전시설		보호종 및 서식지 보호시설, 자연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관리시설
	탐방시설		탐방센터, 탐방로, 탐방안내시설, 탐조시설, 탐방편의시설, 안전시설(체 험교육시설 포함)
	지역사회관련시설		마을센터, 숙박시설
생태 관광 진흥	체험교육		자연체험, 학습체험, 농촌체험, 문화체험, 음식체험
	생태숙박		농가형 민박 권장, 생태관광숙박시설 인증
	생태먹거리		지역농산물, 친환경, 슬로푸드개념이 도입된 음식물, 방문객이 직접만 들 수 있는 상품개발, 지역 고유 먹거리개발

나.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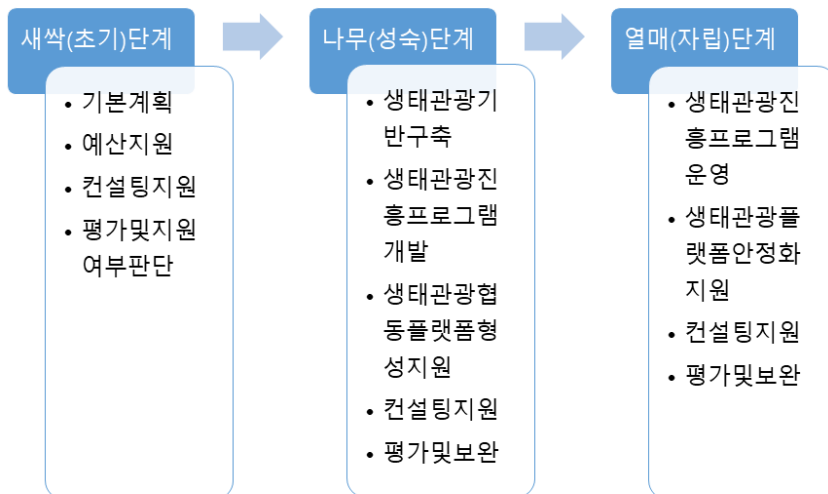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은 생태관광컨셉 구성요소인 생태관광기반구축
→ 생태관광진흥사업 → 생태관광 협동플랫폼 구축 순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1단계(2015~2019)에 대부분 기반준비가 완료된 상태임.
2단계(2020~2024)에는 1단계 사업들에 대한 운영·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홍보·마케팅과 대외적 위상강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각 구성요소들은 준비 → 기반 → 운영 → 보완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되며 사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임. 따라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의 발전단계에 맞는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표 4-2〉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 발전방향

구분	세부내용	1단계 (15~19)		2단계 (20~24)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생태관광기반구축 (하드웨어)	- 환경보전시설 - 탐방시설 - 지역사회관련시설	준비	기반	운영 보완	보완
생태관광진흥사업 (소프트웨어)	- 체험교육 프로그램 - 생태숙박 프로그램 - 생태먹거리 프로그램		준비	기반 운영	보완
생태관광 협동플랫폼 구축 (지역공동체)	- 생태관광 협의체 - 생태관광 마을사업단 - 에코매니저		준비	기반 운영	보완
홍보마케팅	- 생태관광 홈페이지(상품정보, 예약 등) - 생태관광브랜드 개발 - 생태관광상품 개발 - 생태관광패스라인 구축			준비 기반	운영 보완
대외적 위상강화	- 전북생태관광협회 운영 - 생태관광 국내외 세미나 정기 개최			준비 기반	운영 보완

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12개를 사업추진정도에 따라 새싹(초기), 나무(성숙), 열매(자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새싹(초기)단계는 5년간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본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획수립 단계에 있거나 주민공동체, 행정지원, 생태관광인프라가 불확실한 지자체로 지속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나무(성숙)단계는 투입된 예산에 따라 생태관광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주민공동체 구성 및 행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생태관광기반 보충과 생태관광진흥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열매(자립)단계로 진입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추진 주체가 될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플랫폼의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열매(자립)단계는 생태관광인프라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행정지원이 적극적인 지자체로 협의체, 마을사업단, 에코매니저로 구성되는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주민주도 생태관광

-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대상 12개 지자체는 대부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에코매니저를 육성하여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표 4-3〉 생태관광지별 협의체 구성 및 에코매니저 육성 현황(2018년 기준)

생태관광지명	협의체구성 유무	에코매니저 육성 유무
1.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	○(16.1)	○ 7명
2. 익산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	○ 6명
3. 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	○	○ 7명
4.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16.5)	○ 4명
5. 김제 벽골제 생태농경원	×	○ 6명
6.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16.4)	○ 6명
7.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	○ 5명
8. 무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	○ 1명
9.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16.5)	○ 8명
10. 임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16.7)	○ 7명
11. 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	○ 3명
12.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15.3)	○ 7명

자료 : 2019년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 자료 참조

- 생태관광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군의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장수군의 장수수분마을협의회와 고창군의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정읍시는 추진 초기 조직되었던 솔티마을주민협의체와 함께 생태관광 전담으로 솔티생태관광협동조합(18.3)을 조직하여 2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관광기반이 완료된 완주군의 싱그랭이영농조합법인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를 모색하고 있음
- 12개 전라북도 생태관광 사업지중 탐방객이 증가하고 에코매니저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안정적 수익구조와 내부 현안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직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대부분 마을들이 농산촌에 위치해 있어 농촌 및 산촌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복추진됨으로 인해 차별화된 생태관광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존 마을조직과 함께 상생하면서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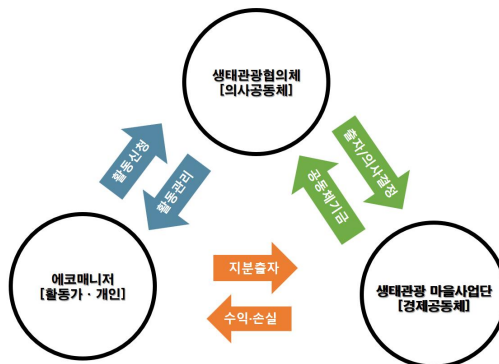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전라북도 생태관광사업의 추진주체인 공동체 기반은 마을과 마을주민이 되며 생태관광사업을 추진을 위해 협의체, 에코매니저, 마을기업이 조직되었음. 현재 이들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생태관광사업 조직간 그리고 기존 마을 조직과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기능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공동체 협동 플랫폼을 구성하고자 함

가. 생태관광 공동체 협동 플랫폼의 필요성

1)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역 육성을 위한 협동의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효율적인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에코매니저·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 생태관광 자원이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의 협동적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 생태관광지역의 기존 협의체 내부에는 마을주민, 귀농귀촌, 생태활동가, 민박·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갈등의 잠재적 요소가 크고 협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공동체 의사결정 트랙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트랙을 분리하여,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동의 플랫폼이 필요함



〈그림 4-2〉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 추진체계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2)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현재 탐방 서비스는 수익성이 높지 않고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확장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이고 동일한 해설 내용이 유지될 경우 방문객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지역 재방문 유도가 어려우므로 개선·보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해설 교육의 보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 기반을 토대로 확장력 있는 수익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의 생태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관광 공동체 비즈니스 육성

- 생태관광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체 육성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과 연계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공 요인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즈니스 육성에 있음
 -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생태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 방식을 설계하고, 수익모델, 지역주민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임
 - 생태관광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태관광자원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환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나.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의 구성 및 추진방안

1) 생태관광 협의체

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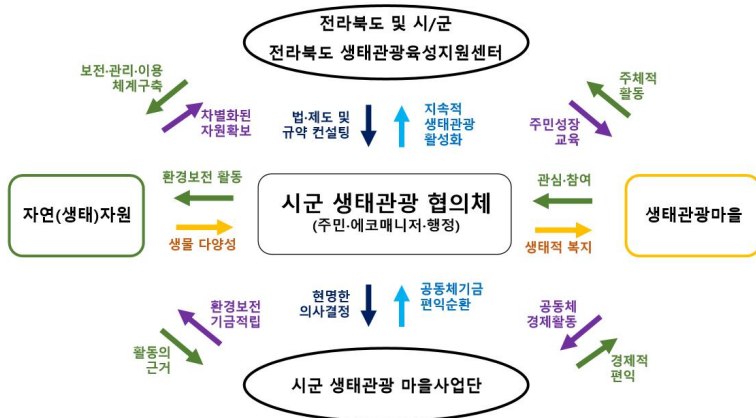
- 생태관광지 공동체 활동의 한 주체로서 생태관광지 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오랜 시간동안 지켜이 쌓여온 마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계 및 생활문화의 상징과 책임을 갖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곳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관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태관광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과 민간, 민간과 행정 사이에서 수평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협치의 원리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함

나)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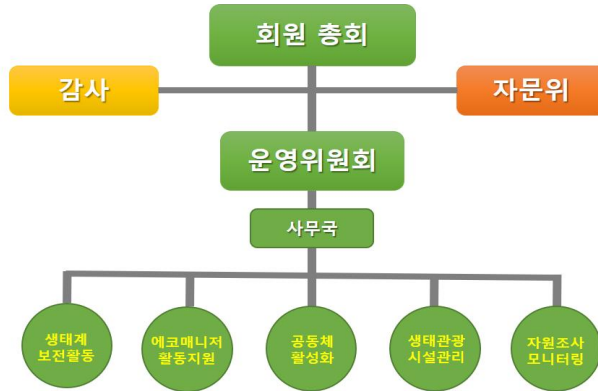
- 시군 생태관광 협의체는 생태관광지 공동체 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안에서 관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



〈그림 4-3〉 생태관광 협의체 관계도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 협의체의 구성은 공식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운영위원장과 감사, 운영상의 결정 및 관리와 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체의 업무를 기획·추진하는 사무국 등으로 구성함



〈그림 4-4〉 생태관광협의체 구성(안)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2) 생태관광 마을사업단

가) 개념

- 생태관광지의 공유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경제공동체
-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편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사업단으로 정책에 동의하는 출자자들로 구성됨
- 마을사업단의 활동으로 창출된 편익은 생태관광 협의체와 공유하고 생태관광지 내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균형 있는 관계설정에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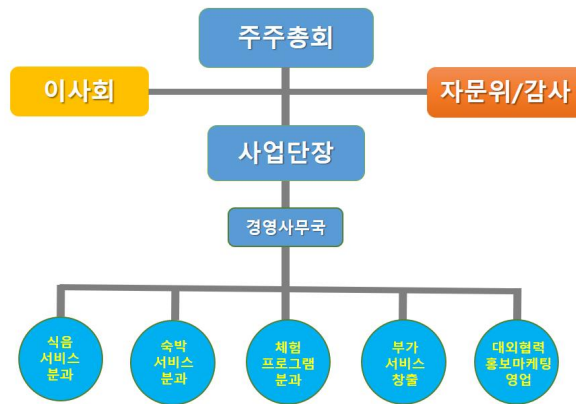
〈표 4-4〉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의체와 마을사업단 비교

구분		내용
비영리 법 인	생태관광 협의체 (의사결정)	◦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생태관광지역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 조직
영 리 법 인	생태관광 마을사업단 (사업모델)	◦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태관광의 경제적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나) 추진방안

- 전라북도 생태관광 정책에 동의하는 출자자들이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편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경제공동체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을 설립함

- 전라북도 생태관광 마을사업단은 대표성을 지니는 사업단장(대표이사),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경영사무국 및 단위분과로 구성되며, 경영상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및 관리·감독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함
- 마을사업단의 활동으로 창출된 편익은 생태관광지 협의체와 공유하고 균형 있는 관계설정에 동의함



〈그림 4-5〉 생태관광 마을사업단 구성(안)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3) 에코매니저

가) 개념

- 생태관광지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환경보전과 해설 및 체험, 자원조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생태활동가로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뜻함

나) 추진방안

- 생태관광지 마을주민이나 귀농귀촌자, 생태해설가 및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정책에 동의하여 향후 지속적인 활동의사가 있는 개인들은 지원할 수 있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20시간(3일)이상을 이수하고 소정의 해설시연평가를 합격한 자를 에코매니저로 선정하며 2년간 보수교육 1회(14시간 2일)를 수료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에코매니저 역할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표 4-5〉 에코매니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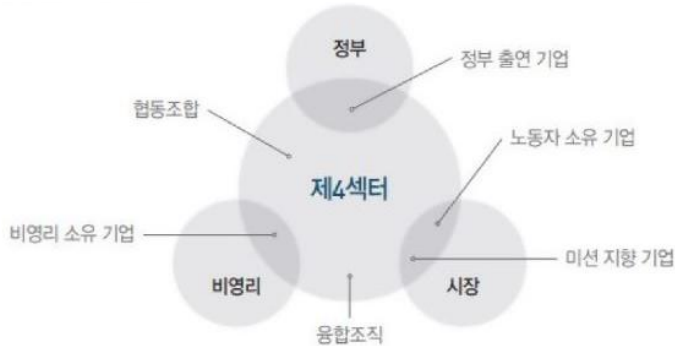
구분	에코매니저	사군	센터
내용	·활동개시 신고 ·활동 및 청구 - 활동일지 등 서류제출 (에코매니저→시·군)	·제출서류 확인 ·활동 증빙서류 검토 후 센터에 청구 (시·군 → 센터)	·제출서류 검토 및 비용 지급 (센터 → 에코매니저)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3. 광역 중간지원조직

가. 광역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 전라북도 생태관광 정책이 초기(2016~2019)에서 중기(2020~2023)로 접어들며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시작된 사업이 점차적으로 관민, 민관 사이에 놓인 광역중간지원조직(센터)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동력이 확보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상징하는 ‘제4섹터’⁵⁾ 지역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임



〈그림 4-6〉 제4섹터 개념 모형도

자료 : Jonathan Crinion(2009)

- 이는 광역단위 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결합, 시군 현장의 공동체적 성장과 생태자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내 생태관광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며 접근방법에 있어 기존의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행정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던 전북 생태관광 정책이 중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의 확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현장을 조율하면서 향후 지역이 갖는 생태가치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제4섹터의 정책모델을 발굴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5) 제4섹터란, 일반적으로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및 시민사회(제3섹터)의 영역들이 공유되는 민관협력의 분야를 뜻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영역을 포괄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의 특성을 가진 조직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및 지역재단,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공동체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의 영역들이 대부분 제4섹터에 포함된다.

- 이를 통해 앞서 제시된 전라북도 생태관광 플랫폼인 생태관광 협의체, 생태관광 마을사업단이 향후 지역중심의 민관협력사업 방식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동체관리기업’ 혹은 ‘지역관리기업’ 형태로 진화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나. 전라북도 광역 중간지원조직 현황

- 전라북도는 시군별 생태관광육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센터를 설치함
-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관광 정의와 센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4-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상 센터의 기능⁶⁾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사)한국생태관광협회에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을 5년간(19.1~23.12) 위탁함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15~2024(10년)으로 센터의 위탁기간(2019~2023)을 기간을 초과하고 있어 위탁종료후, 사업완료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2020년 사업 중간점검을

6)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2015.10.30.제정, 2017.8.11. 개정

위한 시군토론회 이후 시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기능 및 추진 사업
내용의 변화가 필요함

〈표 4-7〉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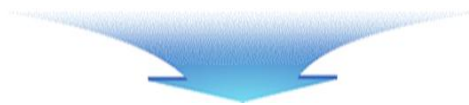
구분	사업내용
기획운영	·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장기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계획 통합 지원조정 · 생태관광지 공동 가이드라인 적용·관리 · 전북형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상품 사업화 기획·운영
컨설팅 네트워크	· 지역맞춤형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생태체험프로그램 등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성화 등 · 12개 시군 생태관광지 및 생태마을 방문객(탐방객, 여행사 등) 네트워크 구성관리
생태자원 관리	·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생태자원 특화사업 발굴(생태, 인문자원 DB 구축관리) · 생태자원 보전 및 생태자산 인벤토리 구축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	· 생태관광지 운영주체(주민, 에코매니저 등) 교육 및 지원 ·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주민 서비스안전 등 교육
홍보마케팅	· 홍보방안 마련 및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마케팅 · 홍보자료(가이드북, 리플렛, 동영상 등) 제작배포, 생태관광 홈페이지 관리운영 · 생태관광 공동 마케팅(공동브랜드, 생산제품 홍보, 숙박 안내 등)

- 센터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사업의 환경조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2023년 위탁이 종료된 후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시군에 지원되던 센터 제공 서비스 역시 중단될 수 있음.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시군의 경우 생태관광 협의체, 생태관광마을사업단, 에코매니저 등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2023이후 지속적으로 교육, 정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시군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센터 또한 사업초기 생태관광컨셉에 맞는 정상적인 사업추진, 생태관광 기반구축, 생태관광사업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 사업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였다면 사업이 중반이 넘어선 이후에는 사업의 안정화,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전북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대외적 위상강화 등을 위해 센터의 주체성 강화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의 생태관광 공동체 협동 플랫폼과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함

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중장기 발전방향

- 전북형 생태관광 정책사업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12개 시·군별 성장의 차이를 반영하여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업무계획이 초기형(2016~2019) 모델에서 중기형(2020~2023) 모델로 정책 환경이 변화됨
- 정책 도입기에 설계된 사업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고, 시군별 성장의 모습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동체 시스템구축 및 환경적 공간계획,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센터의 새로운 역할이 대두됨
- 더불어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연계 구간 및 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 및 홍보·마케팅 통합브랜드 구축, 시/군간 자원을 연계하는 생태 SOC 등의 규모화, 확장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필요

초기_1단계 (2016~2019)	센터역할	중기_2단계 (2020~2023)
전북형 생태관광 도입	기획·운영	전북형 생태관광 시장 확대
공급자 위주의 인위적 설계	인프라·컨설팅	자립형 생태관광을 위한 이용자 중심 설계
생태적 자원의 효용성 한계 설정	생태자원관리	보전·관리·이용 체계구축 (생태자원 관리 고도화)
외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발굴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기반 프로그램 기획
공동체 성장지원 관점	주민역량강화	협동 플랫폼의 구축 (एको매니저, 협의체, 마을사업단)
시/군별 성공모델 중심의 홍보 (개별사업 시스템)	홍보·마케팅	전북형 생태관광 브랜드마케팅 (통합플랫폼 시스템)
도내외 생태관광 전문가를 활용한 시군 생태관광지사업 지원	대외협력	국내외 전문가 간 네트워크 및 협조체계 강화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위상 제고



정책 고도화	▶ 자립형 협동 플랫폼 : 협의체 및 마을사업단 지속가능성 확보 ▶ 생태농어촌관광 통합형 관광정책 모델 : 지역거점관광 확장성 ▶ 시/군별 생태 SOC 연계확장 : 자원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창출
-----------	--

〈그림 4-7〉 중기 정책환경 변화에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역할변화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표 4-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가능 주요시설⁸⁾

기능	설치가능 주요시설
자연보전	생태습지전통마을, 숲, 야생화 동산, 집자리원·나비원인공동지 등 인공식석처, 인공증식장, 온실, 보호펜스 또는 울타리, 생태어도, 야생동물이동통로 등
순수관찰	관찰센터, 탐조대, 자연관찰로, 생태탐방데크, 관찰원, 전망대, 관찰오두막, 관찰벽 등
체험·학습	생태교육센터, 생태학습원, 자연교육장, 야생조수관찰장, 생태학교, 토양·미생물자연관찰 학습장 등
전시·연구	전시관, 축각전시관(장애인배려), 자연사박물관, 생태야생생물 등 의 연구시설 등
이용·편의 (부대시설)	방문객센터, 유모차 및 휠체어전용보도, 파고라 등 휴게시설, 예술·공예갤러리와 생태의 결합공간 등

- 12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예산의 활용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향후 신규 및 보완시설 설치시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생태시공 분야 전문가, 주민, 행정, 잠재적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도입해서는 안되는 시설
▶ (보전형) 절충형이용형에서 허용 불가한 시설과 보전복원 및 제한적인 관찰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시설 * 단,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하수처리, 관리소, 조명, 주차장, 화장실 등)은 여건에 따라 허용 될 수 있음 ▶ (절충형) 이용형에서 허용 불가한 시설과 보전복원관찰학습체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시설 ▶ (이용형) -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2차선 이상의 자동차로, 유흥시설 등) -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취지 및 목적에 동떨어진 시설 - 기타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 단, ① 소규모 간이매점, 허가된 식당 및 찻집, 기념품판매소 등 규모가 작거나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이 검증된 시설, ②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장, 수유실 등 유아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 ③ 자연을 주제로 한 공예미술조각 등 예술시설 전시관, 박물관, 세미나실 등 전시연구홍보를 위한 시설 등은 여건에 따라 허용 될 수 있음

자료 :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 2016.7

- 현재 시군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은 제한된 시설만이 생태관광기반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성장지원,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발굴, 홍보 및 마케팅 등 실질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음

8)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 2016.7

- 따라서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하여 생태관광기반시설 완성후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 발굴,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며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4-9〉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추진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기획·컨설팅	시군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시·군 통합 워크숍 및 간담회, 생태관광 사업평가 및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성공지역 벤치마킹, 전북 1000리길 모니터링 등
프로그램 발굴	시군별 생태관광 프로그램 보완지원 등 여행상품화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완지원, 생태관광프로그램 여행 상품화 및 모델지역 팸투어
주민역량강화	생태관광 에코매니저 및 1000리길 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으로 에코매니저 양성교육, 전북 1000리길 해설사 양성교육(보수+신규) 및 선진지 견학 등
홍보·마케팅 및 페스티벌	전라북도 생태관광 및 전북 1000리길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축제 생태관광 홍보부스 운영, 생태관광 홍보 리플릿, 1000리길 홍보 리플릿,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전라북도 생태관광 축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등을 통해 홍보
전북 1000리길	전북 1000리길 전국적 홍보 및 노선안내 기반 구축으로 안내판 디자인 기본 가이드 라인 개발 및 시군 배포, 전북 1000리길 전국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4~10월)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전북 1000리길 활성화

나. 평가

- 2016년 이후 전라북도생태관광지육성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초기 평가는 사업준비도, 집행효율성, 운영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사업 초기인 만큼 사업계획의 추진가능성을 평가의 주된 관점으로 이루어졌음

〈표 4-10〉 초기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사업준비도	사전점검요인, 사업의 특화성
집행효율성	사업집행실적, 사업추진력
운영가능성	관리운영의 적정성, 지역주민 참여, 파급효과

- 이후 지표항목은 사업계획성, 추진적극성, 운영가능성으로 변화되었으며 평가는 생태관광사업이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는 주된 관점으로 이루어졌음

〈표 4-11〉 수정 평가지표

항 목	내 용
사업 계획성	생태자원 특화성, 사업 효율성, 계획 충실성
추진 적극성	예산 집행실적, 사업 활용성(프로그램 운영), 추진의지
운영 가능성	홍보, 지역주민 참여, 파급 효과

- 현재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은 12개 지자체별로 생태관광기반,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주민공동체의 추진정도가 달라 동일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지자체나 주민공동체의 추진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별 사업의 추진정도가 고려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함. 먼저 12개 지자체를 사업추진정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어야하며 평가는 기존 지표를 구분 유형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하거나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임
- 새로운 평가지표는 궁극적으로 생태관광컨셉에 맞고 전라북도의 사업취지 목적을 달성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인프라(생태관광자원, 생태관광기반,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마을협의체운영, 지자체협력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지표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전북 통합브랜드 및 지역 랜드마크

가. 전북 통합브랜드

- BI(Brand Identity)는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체계인 브랜드(Brand)와 동질성, 일치성, 통일성, 정체성, 주체성 등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Identity)가 결합된 의미임⁹⁾
- 전라북도 주관으로 생태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이미지가 개발되지 않아 전북 생태관광의 브랜드화 및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전북형 생태관광 개념에 적합한 이미지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그림 4-9〉 전라북도내 생태관광 이미지

- 전라북도 생태관광 통합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라북도의 생태관광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질공원, 천리길, 생물권보전, 지자체 등 전라북도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관광 정책을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하며 차별화된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어야 함

9) 전라북도, 1사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2015.6

- 정부의 생태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이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태관광지역 BI방향을 “존중받고 배려받는 우리의 자연, 자연이 주인공입니다”로 내세우고 있음

〈표 4-12〉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BI방향

BI	핵심키워드	기본방향	
	우수한 청정자원	상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정책의 가치를 부여
	미래세대	독창	국내외 기존 BI와 차별, 한국자연의 정체성 부여
	진취성과 역동성	간결	메시지를 간결하게 표현
	지역에서 국가, 국제 사회로 도약	변용 가능	기본로그 이외에 인쇄물, 동영상, 상품 등의 변용이 용이
		범용	인쇄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형식과 용도로 적용 가능

- 전라북도의 생태관광 육성정책 배경은 전라북도 토탈관광 구축 활성화와 전북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추구로 생태관광과 대표관광 및 농어촌관광을 연계발전 시키고자 함



-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보전이 잘 되어 있는 전라북도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주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해지는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와 같이 정부와 전라북도 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생태관광을 이미지를 통해 통합하고 이를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여 전라북도 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브랜드를 생산해 내는 접근이 필요함

- 통합브랜드 전략은 BI를 통한 이미지 통일, 브랜드 네이밍 전략, 컬러마케팅 등이 있음

〈표 4-13〉 생태관광지의 Identity 전략¹⁰⁾

구분	개념정의
BI	전라북도 생태관광을 소비자 입장에서 언어적(Verbal), 시각적(Visual)기호로 전환하는 작업
Brand naming	전라북도 12개 시군의 깃대종 및 대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통일된 생태관광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안 예 : 무주반딧불이 에코파크, 경천 싱그랭이 에코파크
Color Identity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의미와 상징이 반영된 색체를 개발하여 방문객들과 공유함으로써 생태관광지의 정체성과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

나. 지역 랜드마크

- 전라북도는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이 구축”에서 랜드마크 설정유형을 지역 공간을 활용한 방식과 신규 시설을 도입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생태관광체험센터”를 랜드마크로 제시함

〈표 4-14〉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랜드마크 유형 및 추진방향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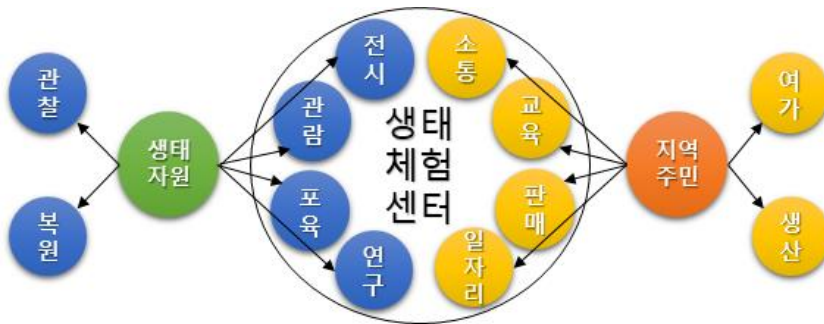
유형	추진방향
지역 공간을 활용한 방식	대상 지역의 관광자원과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자연 생태계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려는 방식으로 마을, 자연경관, 생태자원이 서식하는 지역 등의 형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
신규 시설을 도입한 방식	생태자원을 활용하면서 시설물(예 : 체험센터)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교육관광 및 관광 매력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식

- 생태관광체험센터는 전시/관람, 행정/연구, 포육, 체험/학습, 편의/휴게 등의 기능을 보유하게 되며 지역 생태자원 및 지역주민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게 됨

10)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2015.6 재정리

11)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2015.6 재정리

- 지역 생태자원은 생태관광체험센터내에서 연구, 포육되어 교육과 관찰 그리고 훼손된 자원의 복원을 위해 활용되게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은 일정 생태관광교육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대한 판매처를 제공받게 됨
- 행정과 민간단체는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내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에게는 4계절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됨. 매력성 있는 랜드마크 역할과 더불어 생태관광에 기반한 지역의 중요한 핵심시설로 자리하게 될 것임



〈그림 4-10〉 생태체험센터 기능

- 이에 따라 군산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정읍시 방문자지원시설, 진안군 방문자센터, 장수군 탐방센터, 임실군 방문자센터 등이 시설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생태체험 또는 방문자센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진흥내 요소들(체험·교육, 생태숙박, 생태먹거리)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랜드마크의 추진방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방문객 및 생태계 특성, 생태관광 및 운영 측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 랜드마크를 통한 지역의 환경적 정체성 획득은 신규 시설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 자연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사회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지역 공간을 활용한 방식을 통한 랜드마크 도입 형태도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생태관광 관련 국가예산

가. 생태녹색관광 육성¹²⁾

1) 사업 개요

-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관광상품화-브랜드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육상·지원
- 한국을 대표할 만한 생태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 지역은 최대 5년까지 지원)

2) 추진 목적

-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여 대표적인 생태관광 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
 -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은 지니고 있으나 노후화 된 관광시설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기능 재생

3) 공모 내용

- 선정분야 및 규모 : 2개 분야, 총 15개 내외
 -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10개 내외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5개 내외
- 사업기간 : 기본 3년(우수 상위 10% 지역 추가 2년 지원, '19년부터 적용)
 - * 단, 해당연도 평가결과가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은 차년도부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2,075백만 원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 정률지원(국비, 지방비 5:5 매칭)
 -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1,375백만원(경상:자본=65:35)

12)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생태관광 육성 공모 계획(안)」, 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700백만 원(경상:자본=50:50)

* 단, 지원규모는 사업 특성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생태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
- 생태관광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 관광인프라 보완 및 기초·편익시설 설치(단,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차원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 위주)

○ 생태관광 사업 예시

- 경상보조: 소프트웨어(문화행사, 이벤트, 공연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 기존 종사자·관계자 교육, 관광안내·해설 등), 콘텐츠웨어(자연자원의 인문학적 해석을 통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지역고유의 역사문화, 문화예술, 지식정보콘텐츠 등의 대표화, 테마화 등), 휴먼웨어(문화콘텐츠 기획자 등 전문인력 자문, 교육 및 홍보인력 교육 등)
- 자본보조: 하드웨어(시설 내·외관 정비, 공공디자인(색채, 조명 등) 통일, 가로경관 정비, 동선체계, 공공편익시설 개선)

4) 세부 추진 절차

○ (접수기간) 2020. 1월 31일(금)까지 /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 후 제출

○ (심사) 2020. 2월 중 / 사업별로 서류, 현장 평가 등 별도 진행

○ (결과 발표) 2020. 3월 초 예정

○ (보조금 교부) 2020. 3월~4월

- 현장·PT 평가는 '20년 신규 사업에 한하여 실시, '19년 선정사업은 '19년 10~11월에 실시한 현장평가로 대체
- 선정 후 전문 컨설팅단의 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 보완 후 사업비 교부

5) 심사 기준

〈표 4-15〉 생태관광 육성 사업계획 평가표

구분(비중)	항 목	내 용
생태자원 평가(40)	생태자원의 매력성 (40)	· 생태자원의 지역특화성 · 생태자원의 관광매력성
관광 콘텐츠 전략 평가 (40)	관광 콘텐츠화 및 브랜드화 전략의 독창성 및 충실성 (30)	· 스토리텔링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 생태체험프로그램의 전달인력 여부 · 관광상품 구성의 매력도 및 브랜드화 가능성 · 인프라 및 안내체계 구축 정도 · 홍보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
	지역관광 파급효과 (10)	· 주민역량 강화 사업 여부 · 지역 관광업계 및 학계 등 참여 정도 ·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 정도
지자체 추진 의지 평가(20)	지자체 육성 의지 (10)	· 추진조직 체계화 정도 및 지역 예산 확보 능력 · 생태테마관광 언론홍보
	정부 및 사업 추진기관 협업 정도(10)	· 정부시책 반영 정도 ·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 및 협력 정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생태관광 육성 공모 계획(안)

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¹³⁾

1) 사업 개요

- 기존 사업에서는 지자체가 국비 확보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소규모 단년도 사업, 하드웨어 구축 등 자본보조적 사업 등)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정책 성과물 도출
- 지방분권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중앙정부 주도·단일 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주도·종합지원형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 형성
- 지역 관광개발정책 추진역량 강화 및 지역수요 맞춤형 관광활성화 여건 마련 필요

2) 추진 목적

- 지역관광개발 특화소재 발굴 및 연계

13)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소재를 발굴 및 활용하여 침체된 관광지를 개선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지역관광 자립 발전 토대 마련 지향
 - 지역주도 주민 관광조직체 육성,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역관광의 자립적 성장 동력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재활성화 중심 개발
 - 기존에 노후화 되었거나, 유헴관광자원으로 전락하였으나 추가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사업 대상지의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새로운 시설은 건립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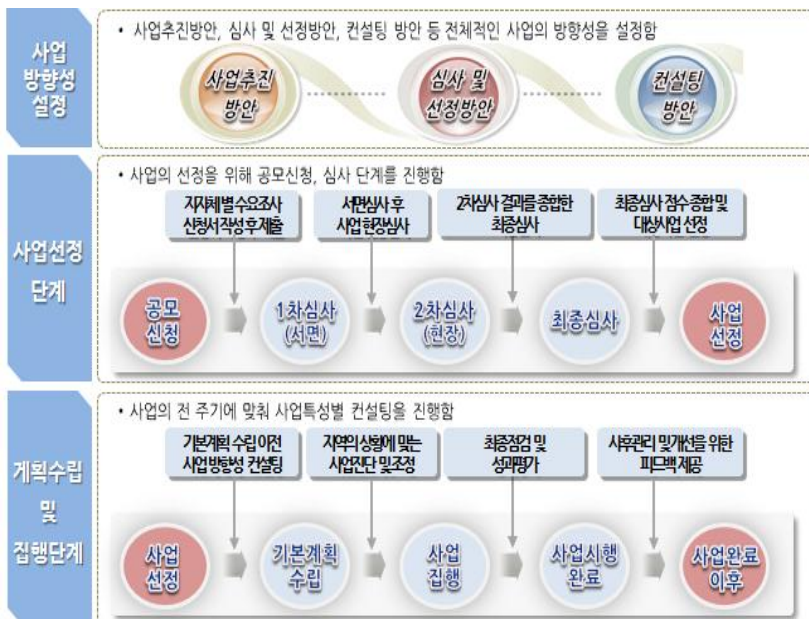
3) 공모 내용

- 공모 대상: 광역도의 기초 시·군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신청 불가
- 사업 범위
 - 각 지역 내 사업 대상지를 설정하고,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이 위치한 인근 지역을 포함
 - * 향후 컨설팅을 통한 사업의 공간 범위 조정 가능
- 선정 대상: 총 8개 사업
- 지원 규모: 5년 간 국비 총 100억 원 이내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 중앙정부, 지자체 5:5 비율로 자원분담
 - * 부지 확보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며, 5:5 분담 재원에 포함되지 않음
 - * 사군비 외에 도비 매칭 시 수요조사서에 명시
 - 시설 관련 자본보조 예산은 50억 원(국비) 이내로 제한
 - 총 사업비, 연차별 사업비 및 세부항목별 투자비 비율은 지원 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단, 컨설팅 과정에서 조정)
 - * 사업 타당성, 지자체 재정상황, 지역 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 변동
- 세부사업 유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관리운영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종합적 형태로 구성
 - 핵심사업 : 관광콘텐츠 개발, 기존 관광자원 연계코스 개발, 관광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지역관광브랜딩, 홍보·마케팅 등

- 관리운영사업 : 관광창업시설, 창업인큐베이팅, 일자리 관련 사업, 주민사업체 육성,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지역관광 역량강화 지원 등
- 인프라 개선사업 : 유류 노후시설 리모델링, 기 조성 관광지·관광단지 재생, 기 추진된 생태관광자원개발·문화관광자원개발을 활용한 지역대표 관광명소 조성 등

4) 세부 추진 절차

- 공모 기간: '19. 12. 19. ~ '20. 02. 06. (50일 간)
- 선정방식: 도 당 3곳 이내 시·군의 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을 문체부로 제출
 - 신청기관 :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등 8개도
 - 공모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심사(1차), 현장심사(2차), 최종심사(3차)를 통해 선정
 - *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및 선정
- 중장기 추진계획(안)
 - '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2개소 선정, 운영
 - * '19년 2개소, '20년 8개소, '21년 5개소, '22년 5개소, '23년 2개소



〈그림 4-11〉 사업추진 단계

5) 평가 기준(안)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취지에 맞추어 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 적절성,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 중점 고려

〈표 4-1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기준(안)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의 타당성	정책 추진방향 부합성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방향과 부합성 · 해당 지자체 지역발전정책과 부합성 · 지역 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목표 구상 여부
	지역 특화자원 경쟁력	· 특화자원의 차별성 및 잠재력, 브랜드 구축 우수성 · 기존 자원의 활용 및 연계 우수성 · 사업 주제 및 핵심사업의 명확성
	단위사업 융복합 적절성	· 핵심, 관리운영, 인프라 개선사업 등 단위사업 간 융복합 적절성
	사업계획의 실현성	· 계획 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 사업부지 및 시설물 활용 가능성 ·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추진체계 적절성	추진체계 조직 및 활용	· 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 사업과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	· 주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참여가능성 · 예상 갈등 및 문제점 대응방안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사업의 직·간접적 기대효과	· 일자리, 지역 소득 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 · 지역정체성 강화 등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적절성 · 사업종료 후 지속적 유지 가능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9),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설명자료

다. 열린 관광지 조성¹⁴⁾

1) 사업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14)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도 예비 열린 관광지 공모」,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2) 추진 목적

-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 목적
 - 국정과제 73호 '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여가 사회 실현-열린 관광지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202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소 조성 계획('19년 기준 전국 총 41개소 선정)
 - 전라북도 총 15개소 고창(1), 완주(1), 무주(1), 전주(4개), 남원(4), 장수(4)

3) 공모 내용

- 공모 대상: 3~5개소의 국내 관광지*으로 구성된 '관광권역'
 -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는 곳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2.5억 원 지원
 - 사업기간: 예비 열린 관광지 선정 시('20년 5월) ~ 조성완료 시('21년 2월)
 - 매칭 : 관광지점 개소당 2.5억 원(10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해야 함
 - * 단, 관광권역별 사업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관광지점별로 투입되는 예산 비율은 조정 가능(예: A, B, C 관광지점을 '가' 권역으로 신청할 때, 2.5억×3개소×2배(최소 매칭)=15억 원에서 2천×3개소=6천만 원을 제외한 14.4억 원은 A(5억), B(7억), C(2.4억)으로 사용 가능)
- 사업내용 : 관광지점별로 진입지점부터 주요 관광시설·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 조성, 각 관광지점별로 체험형 열린 관광 콘텐츠 확보, 확보된 동선을 바탕으로 리플렛 등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강화, 관광지 종사자 대상 열린 관광 교육 추진
- 국비 자본보조사업
 - 시설 개선 : 주차장,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축지도 등 필수 이용시설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및 안내표지판 설치
 - 동선 개선 : 관광지점 내 시설 간 이동 동선 상의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손잡이, 비상등 등 설치

○ 지방비 경상보조사업

- 체험 콘텐츠 발굴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 개발(1화성 행사 불가)
- 정보제공 : 열린 관광 안내도 시안 제작(관광공사 예산)인쇄(지자체예산), 점자인내서 제작(지자체 예산), 누리집 앱접근성 개선(지자체 예산) 등
 - * 열린 관광 안내도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이 표시된 지도가 삽입되고, 열린 관광지 소개 내용이 포함된 리플렛
 - * 점자인내서 : 시각장애인이 해당 관광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점자로 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서

○ 기타 예산

- 종사자 교육 : 열린 관광지 종사자, 지자체 관광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열린 관광 교육 필수 참여

4) 세부 추진 절차

○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020. 3. 4.(수)

○ 신청방법 : 공문 발송 + 우편 제출(두 가지 모두 필요)

○ 평가절차

- 1차 심사(자격확인): 2차 심사 대상 관광권역 선정
 - * 확인내용 : 신청자격 확인
 - * 확인일정 : 3월 2~3주
 - * 확인대상 :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관광권역
- 2차 심사(서면심사): 3차 심사 현장평가 대상 관광권역 선정(1.2~1.5배)
 - * 심사내용 : 정량평가 및 가점
 - * 심사일정 : 3월 4주
 - * 심사대상 : 1차에서 신청자격이 확인된 모든 관광권역
 - * 결과통지 : 4월 1주까지 3차 심사 대상권역에 방문일정 개별연락
- 3차 심사(현장심사): 최종 관광권역 및 지점 선정
 - * 심사내용 : 정성평가
 - * 심사일정 : 4월 2~5주

- * 심사대상 : 2차 심사를 통과한 관광권역(1.2~1.5배수)
- * 심사방식 : 1조 2~3인으로 구성하여 해당 관광권역 방문
- * 결과통지 : 5월 3주 개별연락 및 공문발송 (5월 2주 최종선정)

5) 평가 기준

정량 평가	· 20점 만점 그대로 관광권역 합계값에 반영	
정성 평가	사업추진방향	· 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관광권역 합계값에 반영
	관광지매력도	· (1단계) 심사위원별로 점수의 평균값으로 각 평가요소별 평균값 도출
	환경준비도	· (2단계) 신청한 관광지점별로 ‘관광지매력도+환경준비도+개선계획’ 합계값(70점 만점)의 평균값 도출
	개선계획	
가점	· 10점 만점 그대로 관광권역 합계값에 반영	

라. 전북 생태관광지 국가 예산 연계 가능 공모사업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국가 예산 연계 가능 공모사업 기준은 현재까지의 방문객 및 소득현황,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제시함

〈표 4-17〉 전북 생태관광지 국가예산 연계 사업

시군	생태관광지	생태녹색	계획공모	열린 관광
군산시	청암산 에코라운드		○	
익산시	서동 생태관광지			○
정읍시	솔티달빛 생태숲	○		
남원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		
김제시	벽골제 농경생태원			○
완주군	경천 싱그래이 에코빌			○
진안군	진안 지오파크(Geo-park)		○	
무주군	구천동 33경		○	
장수군	금강발원지 뜬봉샘 에코파크	○		
임실군	성수 왕의 숲	○		
순창군	섬진강 장군목	○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	

*생태녹색 : 생태녹색관광 육성, 계획공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열린 관광지: 열린 관광지 조성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Jeonbuk Institute

-
1. 결론
 2.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전라북도생태관광지육성사업은 고창운곡습지에 이어 전라북도 제2호 국가생태관광지역(정읍시, 환경부지정 2018.1)을 탄생시키고 전라북도 자체생태관광축제(정읍시, 2018.10)를 개최하는 등 역량을 높여가고 있음
- 사업중반에 접어들면서 생태관광컨셉에 대한 재정립, 구체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음

1) 전라북도 생태관광컨셉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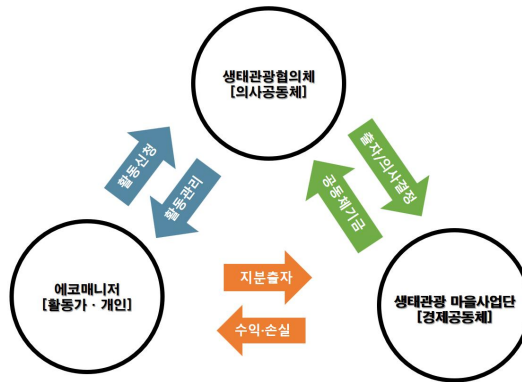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생태관광사업은 사업초기 선정된 생태관광자원과 생태관광기반 및 생태관광진흥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생태관광컨셉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구조화된 주민역량강화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그림 5-1〉 전라북도 생태관광컨셉

2) 마을공동체 생태관광 협동플랫폼 구축

- 전라북도 생태관광사업의 추진주체인 마을공동체는 수익이 창출되며 수익 분배에 따른 갈등예방과 기존 마을조직과의 차별성확보를 위해 생태관광 협의체, 생태관광 마을사업단, 에코매니저로 구성되는 구체적인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각각이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상호간 그리고 마을내 다른 조직과 상생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



〈그림 5-2〉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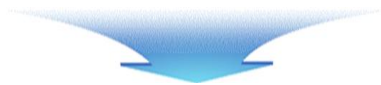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3)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지속성 확보

- 전북형 생태관광 정책사업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12시/군별 성장의 차이를 반영하여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업무계획이 초기형(2016~2019) 모델에서 중기형(2020~2023) 모델로 정책 환경이 변화됨
- 더불어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연계 구간 및 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 및 홍보·마케팅 통합브랜드 구축, 시/군간 자원을 연계하는 생태 SOC 등의 규모화, 확장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함

〈표 5-1〉 중기형 정책 환경에 따른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역할변화

초기형 (2016~2019)	센터역할	중기형 (2020~2023)
전북형 생태관광 도입	기획·운영	전북형 생태관광 시장 확대
공급자 위주의 인위적 설계	인프라·건설팅	자립형 생태관광을 위한 이용자 중심 설계
생태적 자원의 효용성 한계 설정	생태자원관리	보전·관리·이용 체계구축 (생태자원 관리 고도화)
외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발굴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기반 프로그램 기획
공동체 성장지원 관점	주민역량강화	협동 플랫폼의 구축 (에코매니저, 협업체, 마을사업단)
시/군별 성공모델 중심의 홍보 (개별사업 시스템)	홍보·마케팅	전북형 생태관광 브랜드마케팅 (통합플랫폼 시스템)



정책 고도화	▶ 자립형 협동 플랫폼 : 협업체 및 마을사업단 지속가능성 확보 ▶ 생태농어촌관광 통합형 관광정책 모델 : 지역거점관광 확장성 ▶ 시/군별 생태 SOC 연계확장 : 자원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창출
-----------	--

자료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4) 전라북도 통합브랜드 및 지역 랜드마크 구축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은 대표관광, 농·어촌관광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성장, 부가가치창출, 책임있는 관광객, 자연자원보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전라북도 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생태관광 이미지를 BI를 통한 이미지 통일, 브랜드 네이밍 전략, 컬러마케팅 등을 통해 통합하고 이를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라북도 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브랜드를 생산해 내는 접근이 필요함

〈표 5-2〉 생태관광지의 Identity 전략¹⁵⁾

구분	개념정의
BI	전라북도 생태관광을 소비자 입장에서 언어적(Verbal), 시각적(Visual)기호로 전환하는 작업
Brand naming	전라북도 12개 시군의 깃대종 및 대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통일된 생태관광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안 예 : 무주반딧불이 에코파크, 경천 싱그랭이 에코파크
Color Identity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의미와 상징이 반영된 색채를 개발하여 방문객들과 공유함으로써 생태관광지의 정체성과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

-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생태체험 또는 방문자센터는 생태관광진흥 요소들 (체험·교육, 생태숙박, 생태먹거리)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방문객 및 생태계 특성, 생태관광 및 운영 측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 랜드마크를 통한 지역의 환경적 정체성 획득은 신규 시설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 자연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사회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지역 공간을 활용한 방식을 통한 랜드마크 도입 형태도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하반기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 사업추진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이 중반기에 접어들며 지자체의 사업 추진정도, 생태관광기반시설의 구축정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 등의 차이에 따라 사업지별 성장정도가 다름
- 사업성과 여부에 따라 12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는 대내외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 잠재성을 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사업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비의 차등지급, 우수 사업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020년) 등을 통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없거나 이미 사업비 투자가 완료된 사업지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임

15) 전라북도, 1사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2015.6 재정리

- 따라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와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대외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그리고 성장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시군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태관광기반시설 조성과 생태관광진흥프로그램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하드웨어와 더불어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원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설치시설 및 예산투입가능 범위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지자체별 조례제정을 통하여 전라북도 지원 및 지자체 자체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일	조례명	주요 규정사항		
		기본계획	위원회	센터
'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15.10.30.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	×	○
'17.04.28.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	×	○
'17.08.07.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17.12.2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	×
'18.11.13.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습지)	○	×
'18.11.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	×
'18.12.27.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18.12.31.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	×
'19.07.01.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자료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내부자료

3) 종합평가에서 분야별 평가로 평가제도 개편 필요

- 현재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사업계획성, 추진적극성, 운영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들을 평가하고 합산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각 시군들의 항목별 장점을 부각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음. 지자체별로 행정과 마을주민이 제도적, 공간적, 부서 및 주민간 협의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사업을 추진하며 얻어지는 성과들을 평가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평가에 의해 숨겨져 버리기 때문임
- 따라서 종합평가 뿐만아니라 생태관광기반 조성,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플랫폼 구축 과정에 대한 개별 평가과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방법의 개편이 필요함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이 필요하다, 2019.5,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 2)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 2016.7
- 3)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2015.6
- 4)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생태관광 육성 공모 계획(안)」
- 5)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설명자료」
- 6)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도 예비 열린 관광지 공모」

정책연구 2020-06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5월 29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87-5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